

2018.05.23. 수.15:30 원광대 승산기념관 세미나실(2층)

제222차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월례연구발표회** 자료집

**발표1 반좌(盤坐)에 관한 기초 연구 / 3**

발표 : 강성원(원불교 재정산업부)

토론 : 길도훈(원불교 충북교구)

**발표2 1910, 20년대 전남 영광지역의 민족사회·경제운동과**

**종교의 공공성 / 19**

발표 : 김민영(군산대)

토론 : 박맹수(원광대)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원 불 교 사 상 연 구 원**  
The Rese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University-Centered Institute



# 반좌(盤坐)에 관한 기초연구

## -좌선의 방법 1조를 중심으로-

강성원  
(원불교 재정산업부)

### I. 서론

원불교에서는 단전주선을 기본 선법으로 하고 있다. 단전주선이란 선을 할 때 의식을 단전에 두고 일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말한다. 단전의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석문혈과 곡골혈 사이를 말한다. 선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종사는 좌선을 중요시 하였으며, 좌선에서도 일심을 모으고 건강상으로도 장점이 많은 단전주선을 핵심으로 보셨다.<sup>1)</sup>

단전주선의 원전이라고 볼 수 있는 수심정경이<sup>2)</sup> 있다. 수심정경의 내용 핵심을 뽑아 만든 것이 정전에 실린 좌선법이다. 정전 좌선법의 방법 첫 조목에 ‘좌복을 펴고 반좌(盤坐)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나와 있다. 좌선을 시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에 관한 내용이다. 이 부분이 수심정경에는 “第三章 明煉氣方法에 (중략)坐禪之法은 先正坐體하야(坐必盤坐) 無傾委不便之感然後에 調息下氣而注意於下丹田하야 守心以定에 寂照不昧니 此內煉之法也라.”<sup>3)</sup>고 나와 있다. 처음 몸을 바르게 앉은 대목에 정산종사는 반드시 반좌로 앉으라고 강조하신 대목이 눈에 띈다. 수심정경의 저본 가운데 『영보국정정편』은 『태극제련내법의략』 가운데 태극영보내련법을 모본으로 이를 유가적으로 수용, 편수한 定靜修行論이다. 한편 『태극제련내법의략』은 중국 宋末·元初 은사 鄭思肖가 道家의 태극영보내련법을 바탕으로 儒家의 至誠의 도를 주체삼아 편수한 책으로 태극靈寶祭鍊法이 담겨있다.<sup>4)</sup>

- 1) (중략)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고, (중략)위생상으로도 극히 긴요한 법. (중략)몸에 병고 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택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心丹)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禪定)상으로도 위생상으로도 실로 일거 양득하는 법이니라. 정전, 좌선법
- 2) 정산종사가 1950년대에 《정정요론(定靜要論)》을 분장산보(分章刪補), 곧 장을 나눈 다음 내용을 가감·보충정리하고 이름 붙여 발간한 수양 보조교재. 1927년 5월에 발간된 《수양연구요론(修養研究要論)》에 수록된 《정정요론》은 원래 《정심요결(正心要訣)》로 불리는 독립된 서적으로 전래의 도교계통 수련서였다. 부안사람 이옥포(李玉圃)가 1900년대에 기술한 것으로 전하는데, 정산이 스승을 찾아 전라도를 순력하던 1917년 증산교단(甞山敎團)을 방문했을 때 강일순(姜一淳)의 여식 강순임(姜舜任)을 통해 수집하여 교단에 수용되었다. 원불교대사전
- 3) 좌선의 법은 먼저 앉은 몸을 바르게 하여(반드시 반좌로함) 기울거나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낌이 없게 한 뒤에 호흡을 골라 기운을 내려서 뜻을 하단전에 갖다 대어 마음을 지켜서 정하고 고요히 비추어 어둡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안으로 단련하는 법이다. 선이란 무엇인가? 1998. 정귀원. p131.

좌선은 먼저 몸을 조절하는 조신법(調身法), 숨을 조절하는 조식법(調息法), 마음을 조절하는 조심법(調心法)이라고 할 때 반좌는 조신법에 해당 되며 처음 좌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좌선을 하는 사람이 반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면서 하게 되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시간을 지날수록 반좌를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과는 건강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좌선을 매일 같이 하는 사람이 건강이 나빠진다고 하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좌선의 자세와 관련해서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sup>5)</sup> 또한 좌선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반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지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선(禪)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인간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 근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선의 형태는 앉아서하는 좌선(坐禪), 서서하는 입선(立禪), 누워서 하는 와선(臥禪), 걸어가면서 하는 행선(行禪)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종사가 선택한 것은 좌선이다. 좌선이 선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좌선은 바닥에 좌복을 펴고 하는 방법과 의자에 앉아서 하는 형태로 나뉘게 된다.

반좌는 좌선을 하기 위한 첫 단계인 조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신이 되지 않으면 조식(調息)이나 조심(調心) 단계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좌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것들에 대한 어느 점점이 되어져야 한다. 좌복의 상태, 고관절의 구조, 골반상태, 대퇴골 상태, 요추의 상태 등이다. 이러한 부분이 점점되지 않고 선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선을 잠깐 하는 사람이나 하다말다 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자세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선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가 오래가게 되면 몸이 틀어지고 몸이 틀어진다는 것은 뼈가 틀어진다는 것이다. 뼈가 틀어지면 근육이 따라서 안좋은 쪽으로 변화한다. 근육 속에는 신경과 혈관이 이어져 있는데 이곳에 영향을 주어 신경장애와 혈행 장애가 오게 되어 결국 부작용을 낳게 된다. 선을 하면 첫째 몸이 건강해 지는 것이다.<sup>6)</sup> 그러나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어 골반이 틀어지고<sup>7)</sup> 생활에

4) 정귀원, 수심정경 연구, 박사학위 논문, 2010년, 서론 3p.

5)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禪)을 하기 시작하였다. 자세와 호흡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첫 선을 걸가부좌로 45분 하였고, 단전이 불러 오르도록 호흡을 무리하게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병을 얻어 15년 넘게 복중(腹中)의 적(積)으로 고생하다가 10여년전부터는 허리병으로 고생을 하였다. 그 동안 이유를 모르고 지내오다가 최근에 의학과 여러 공부를 하면서 원인을 알게 되었다. 특히 현산 임도현·구산 정귀원 교무님과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 되었다.

6)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좌선의 공덕.

7) 허리(요추)·목·어깨·무릎 통증 유발. 거북목·일자목·안면비대칭. 노화 체형으로 변화. 성 기능장애 유

불편을 가져오고 심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 1. 좌복을 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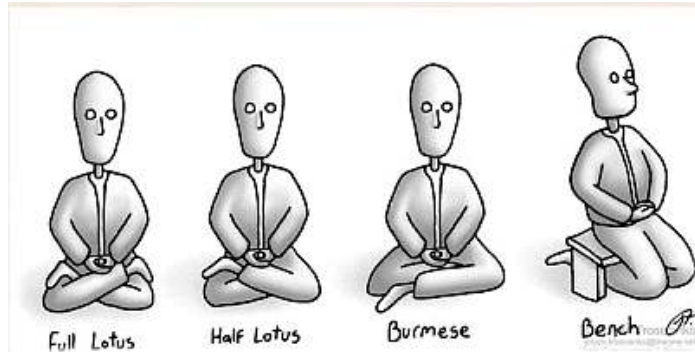
좌복이란 좌선을 하기 위하여 바닥에 놓는 방석을 말한다. 좌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복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좌복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①좌복이 평평한지를 살핀다. 좌복의 소재인 솜이 오래 되거나 좌복 뒷면을 접어 앉는 경우 안에 있는 솜이 한쪽으로 쏠리어 평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앉는 자세가 불편하여 오래 있을 수 없고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②좌복이 너무 두껍거나 얇은지 살핀다. 너무 두꺼우면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고 너무 얇으면 초보자인 경우 단련이 되지 않아 다리가 빨리 저리거나 바닥이 불편하여 앉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 두꺼운 것도 너무 얇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두꺼우면 엉덩이는 편하나 다리에 부담이 되고 너무 얇으면 다리는 편하나 엉덩이는 부담이 되어서 오래 견디지 못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sup>8)</sup> 대체적으로 5~8cm 정도의 두께가 무난하다고 본다. 다만 각자의 체형에 따라 스스로에 맞는 방석의 두께를 찾아야 한다. ③좌복에서 냄새가 나는지 점검 한다. 좌복이 오래 되거나 관리를 잘못하여 탕이 났거나, 음식 냄새가 베인 경우 고요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선을 하는데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면 초기 선정에 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④좌복의 넓이가 너무 좁지 않아야 한다. 그간의 경험으로는 방석은 최소 80cm(가로)×60cm(세로)가 적당하다고 본다. 어느 방석은 길게 만들어 앉을 시 둔부 부분을 접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는데 이는 사람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앉는 것에는 큰문제가 없다. ⑤좌복의 겉감은 면이나 소리가 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교당에 가면 일부 좌복은 앉을 때나 좌복을 만질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이 있다. 소리가 나면 좌선을 하다가 다리를 옮기거나 몸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좌복에서 소리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반좌란 어느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국어 사전에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음.”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반좌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요가에서는 책상다리를 수카사나(Sukasana)라고 부른다.

---

발. 혈액순환 장애 발생. 몸신44회. 채널A. 2015. 10. 21.  
8) 이광정, 정전 좌선의 방법 해설, 원불교출판사, 2016년, p18.



수카사나는 쉬운자세(easy pose)라는 뜻으로 방법은 ㉓블랭킷(Blanket)이나<sup>9)</sup> 블록 위 또는 바닥에 앉아 다리를 펴 막대자세(Dandasana)를 취한다. ㉔무릎을 양 옆으로 구부려 교차하는데 이때 발끝은 가볍게 당겨준다. ㉕가장 편안한 상태로 각각의 정각이 아래 반대 발이 오도록 앉는다. 아래를 보았을 때 허벅지와 교차된 정각이가 만든 삼각형을 볼 수 있다. 고전의 자세처럼 발뒤꿈치가 골반에 붙지 않는다. 수카사나에서는 다리와 골반 사이에 편안한 간격이 있어야 한다. ㉖골반은 중립위치에 있어야 한다. 중립을 찾으려면 손을 바닥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허벅지를 무겁게 떨어뜨리고 천천히 몸을 바닥에 놓아라. ㉗당신의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향해 꼬리뼈를 길게 하라. 상체를 곧게 세우되 허리의 백밴딩은<sup>10)</sup>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가슴 역시 앞으로 튀어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㉘이 자세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면 다리의 위아래를 대체할 수 있다. 또는 자세를 취하는 시간을 나누어 다리의 위아래를 바꿔 골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sup>11)</sup>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좀 더 반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개별 상태나 몸의 각 부위별 상관관계에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반가부좌(半跏趺坐)를<sup>12)</sup> 반좌(盤坐)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발음이 비슷한데서 오는 착각이다. 반좌에서 반(盤)은 쟁반이란 뜻이고 반가부좌의 반(半)은 반절이라는 뜻이다. 발음은 같지만은 뜻은 전혀 다르다. 앉아 있는 형태로는 다리의 위치에 따라 부르는 단어가 다르다. 한쪽 다리가 올라가면 반가부좌, 올라가지 않으면 평좌, 양다리를 다 올라가 꼬아져 있으면 결가부좌, 의자에 앉으면 의자좌이다. 이 중에서 결가부좌가 가장 안정적이거나 뼈의 상태나 종아리 상태에 따라 단련되지 않으면 오래 있기 힘든 자세이다.

반좌라는 것은 영어처럼 쉬운 자세로 보통 편안하게 앉은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편안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편안함이 아니라 좌선이 보통 1시간 이

9) 여기에서는 좌복으로 해석해야 맞다고 본다.

10) 상체를 뒤로 젖히는 동작으로 후굴자세라고도 한다.

11) 출처-http://www.yogajournal.com/pose/easy-pose/ YJ EDITORS, AUG 29,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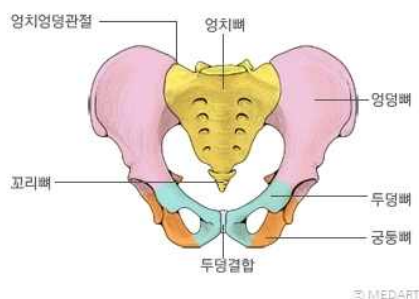
12)좌선 수행할 때의 앉는 자세. 부(跗)란 발등을 가리키며, 가(跏)란 반대쪽 다리를 넓적다리 위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결가부좌(結跏趺坐)와 반가부좌(半跏趺坐)가 있다. 오른쪽 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왼쪽 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얹어 놓고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을 결가부좌라 하며, 어느 한 쪽의 발만 다른 쪽의 넓적다리 위에 놓고 앉는 자세를 반가부좌라 한다.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가부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법을 말한다. 원불교 대사전.

상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좌선법의 반좌는 오래 편하게 바르게 앉는 방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오래 앉아야 편안하게 바르게 앉는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미미하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구조·골반상태·대퇴골(허벅지) 상태를 알아야 한다.

### ①골반 상태

골반<sup>13)</sup> 상태를 본다는 것은 골반이 올바른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골반은 여러 가지 형태로 틀어지는데<sup>14)</sup> 심하게 틀어지면 신경이 눌리어 통증을 동반한다. 골반이 바르다는 것은 대체로 앉은 상태(혹은 선 상태)에서 엉덩뼈(장골) 좌우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엉덩뼈가 심하게 틀어진 경우 앉은 상태에서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앉는 자세가 불편함을 느낀다.

<골반의 구조>



<우상좌하로 틀어진 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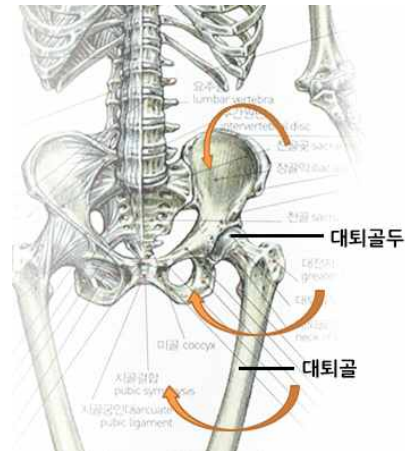
골반은 여덟 부분의 뼈의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는 엉덩뼈가 가장 크고 중요하지만 다른 뼈들도 여타의 이유에서 틀어지면 좌선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다.<sup>15)</sup> 선을 할 때 한 가지 자세만으로 오래하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는 원인이어 골반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좌선 전 후에 몸을 푸는 운동을 해야 하고 한 가지만의 자세를 피하고 좌우상하를 고르게 사용하여야 한다.<sup>16)</sup> 이런 골반통을 방지하게 되면 척

13) 골반 [pelvis, 骨盤]은 2개의 불기뼈(무명골, innominate bone)와 엉치뼈(천골, sacrum) 및 꼬리뼈(미골, coccyx)로 구성된다. 척추와 양쪽 다리를 이어주는 골격으로 척추를 통해 아래로 내려오는 체중을 다리에 전달하여 걷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서울대학교병원.  
 14) 골반은 엉덩뼈(장골) 궁동뼈(좌골) 두덩뼈(치골) 엉치뼈(천골) 꼬리뼈(미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위가 틀어진 상태를 말한다.  
 15) 골반통 [骨盤痛] : 주요한 증상은 골반 및 하복부의 통증과 아랫배와 인접한 넓적다리 주변인 서혜부(鼠蹊部)로 이어지는 통증이다. 급성 동통이 있을 때는 종종 오심, 구토, 불안 등 심한 자율신경 반사 반응이 나타나며 만성 동통의 경우 뚜렷한 자율신경 반사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급성 동통과는 달리 만성 동통은 생리적·정서적·행동적 반응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자생한방병원 한방의학정보, 자생한방병원

추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좌선 시 자세를 바르게 앉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 자세 및 운동과 교정을 통해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 ②허벅지(대퇴골) 상태

허벅지는 앉아 선을 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요즘은 비만이 많아 허벅지가 두꺼워 앉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은 의자를 권하거나 좌복이 두꺼운 것이 좋다. 물론 단련을 통해 앉을 수는 있지만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비만이 아니면서 허벅지가 두껍게 보이거나 O형 다리(안짱다리) 변형이 될 경우 대퇴골내회전을 의심해 봐야 한다.<sup>17)</sup> 대퇴골내회전이 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 극복해야 하고 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단련을 해야 한다.



### ③고관절의<sup>18)</sup> 구조

좌선에 있어서 고관절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고관절의 구조는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양인은 대부분 고관절이 캠(Cam) 구조로 되어 있고 서양인은 핀서(Pincer) 구조로 되어 있다.<sup>19)</sup> 캠 구조인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고

16) 박진규, 골반 통증을 일으키는 잘못된 자세 중 대표적으로는 삐딱하게 앉기, 짝다리 짚기, 다리 꼬고 앉기 등이 있다. 전업농신문, 2018.01.03.

17) 송도연세정형외과, 좌식생활 문화에서 많이 발생하고 성인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 수 있으며 허리 등 여러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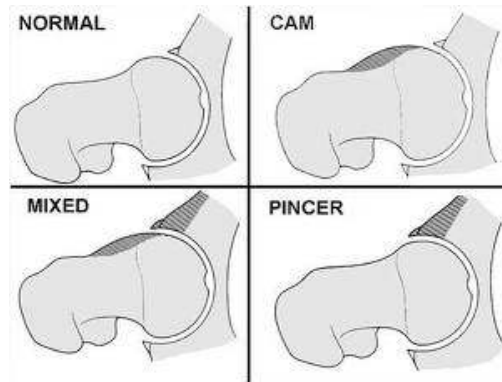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orthopadic1/221049639588>

18) 오른쪽과 왼쪽의 골반과 넓다리뼈가 연결되는 관절

19) 전문의 이원준. 2010년 아시아 태평양 관절염학회(APOA, Asia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에서 11월 발표. 고관절은 타입별로 캠(Cam)과 핀서(Pincer) 모양이 있는데 캠(Cam) 방식은 대퇴골 두(頭)가 완전하게 등글지 않아 비구와 비정상적으로 접촉해 있는 상태이며, 핀서(Pincer) 방식은 비구가 대퇴골 두(頭)를 지나치게 덮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관절 평균각이 크다는 의미는 캠(Cam) 방식과 같이 고관절의 대퇴골 두(頭)와 비구가 비정상적으로 접촉해 있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최초로 규명. 한국인의 평균각은 48.5도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행된 서양인의 고관절 평균각 59.1도(남성 기준)에 비해 크게 좁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양인의 고관절 평균각이 서양인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고관절의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동양인은 고관절의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염이 적은 이유가 된다. 캠 구조는 앉아서 생활하는데 적합구조인 반면 편서 구조는 활동하는데 적합하다. 좌선 시 가부좌를 할 때 양쪽 무릎이 위로 올라간 사람은 고관절이 편서 구조일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은 앉아서하는 행동들이 많이 불편하고 좌선 초기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방석을 사용하거나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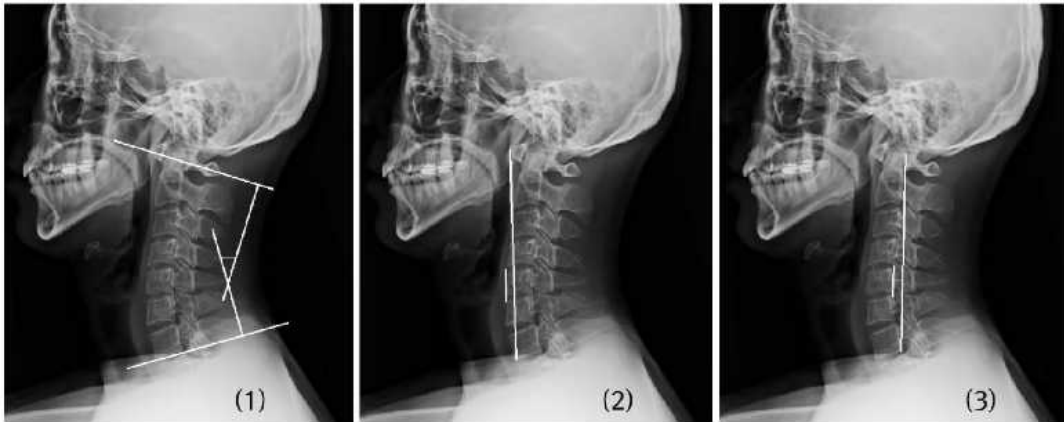
서양인이 생활자체가 좌식 생활이 거의 없는 이유도 있지만은 근본은 고관절 구조에 있기에 양 무릎을 바닥에 닿도록 무리하게 눌러 가부좌를 하는 좋지 않다고 본다. 편서 방식은 고관절을 덮고 있는 엉덩뼈가 길기 때문에 윗부분이 길어서 앉을 때 대퇴골이 닿아 통증을 느끼고 그곳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무리하게 노력을 하면 오히려 후유증만 남게 된다. 서양인이라고 모두가 편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좌선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 점을 유념하여 지도를 하여야 한다. 반면 동양인은 캠 구조가 많다. 캠 구조는 자연스럽게 가부좌 시 양 무릎이 바닥에 닿아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물론 앉을 때 무릎이 바닥에 닿는 것이 고관절과 주변 근육의 유연성과도 관계가 있지만은 고관절의 형태가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 3.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①머리를 곧게 한다.

---

고관절이 부딪힐 가능성이 서양인보다 적기 때문에 고관절 충돌증후군의 가능성이 적고, 고관절의 일차성 관절염의 빈도도 서양인에 비해 훨씬 낮다는 병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리를 곧게 한다는 것은 경추<sup>20)</sup>커브가 정상적인 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추커브를 측정하는 데는 방사선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① C7 추체의 아랫부분으로 평행하게 선을 긋고, 두 번째 라인은 C1의 앞결절과 뒷결절에 점을 찍고 서로 평행하게 선을 긋는다. 이렇게 2개의 라인이 있는 경추 뒤쪽에 각각 라인에 90도 수직라인을 하나씩 긋고 두 선이 만나는 점의 각도가 평균 40도, 최소 35도, 최대 45도 정도의 값이 나오면 정상이다.(Yochum & Rowe, 2005) 이 각도보다 낮은 경우 저전만 현상이라고 칭하였으며, 이 각도보다 클 경우 과전만 현상이라고 한다.<sup>21)</sup> ② C1 추체의 가장 앞에 점을 찍고, C7 추체의 앞아래에 점을 찍은 후 그 사이를 직선으로 긋는다. 이 때 C5 추체 앞부분과의 거리가 평균 3~8mm, 최소 1mm, 최대 9mm 정도의 값이 나오면 정상이다. 여기에서 9mm 이상이면 과전만 현상이라고 칭하였으며, 1~2mm는 저전만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③치아돌기의 위 뒤쪽면에 점을 찍고, C7코너의 뒤아래에 점을 찍은 후 그 사이를 직선으로 긋는다. 이 때 그 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추체(보통 경추 5 또는 6번) 뒷면의 거리가 평균 12mm, 최소, 7mm, 최대 17mm 정도의 값이 나오면 정상이다. 여기에서 7mm 이하면 저전만 현상 17mm 이상이면 과전만 현상이라고 한다.<sup>22)</sup> 저전만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목 거북목이다.<sup>23)</sup> 이런 증상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특히 좌선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경추는 머리의 하중을 바로 밑에서 받기 때문에 전만이 소실될 경우 여러 퇴행성 변화들이 촉진될 수 있다.<sup>24)</sup> 꼭 컴퓨터를 오래하여 잘못된 자세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좌선 하는

20) cervical vertebrae, 頸椎

21) 유성용. 경추의 곡선(Cervical Curve) (척추안정화연구소).

22) 안시호, 두개척추각도의 전방머리자세 측정에 대한 타당화 연구, 석사논문, 2014, p9.

23)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근막통증 증후군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에도 통증은 지속된다. 그리고 뒤통수 아래 신경이 머리뼈와 목뼈 사이에 눌려서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통증은 수면을 방해해서 금방 피로해지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목뼈의 정상적인 역학이 무너져서 목의 관절염이 가속된다. 이는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도 지장을 준다. 목뿔뼈에 붙은 근육들은 갈비뼈를 올려서 호흡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거북목 자세는 이 근육들이 수축하는 것을 방해하여 폐활량을 최고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24) 뒷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 잦은 두통이 발생. 증상이 심할 경우 손과 팔이 저림. [출처]더나은 통

습관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사도 이를 지적하신 것이다. 경추의 바른 자세는 최소한의 근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정밀한 진단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도자로서는 몇 가지 기술을 연마하면 기본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 사람을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①측만측정은 양손으로 경추 양 옆을 손끝으로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지나면 경추가 한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왔으면 측만을 의심할 수 있다. 측만인 경우 머리를 좌우로 강하고 크게 회전을 자주 해주어야 한다. ②과전만 측정은 손을 경추 뒤쪽 등을 만졌을 때 경추가 심하게 들어간 경우를 말한다. 과전만인 사람은 운동을 할 때나 평소 머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양손을 깍지 끼고 후두부에 대고 양팔로 머리를 조이면서 앞으로 강하게 숙이는 동작을 수시로 해야 한다. ③저전만 측정은 보통 일자목이라고 하는데 손으로 경추 등을 만졌을 때 수평에 가까울수록 저전만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저전만증이 있는 사람은 좌선 시에 특히 좋지 않아야 한다. 좋게 될 경우 경추가 정상 각도를 더 벗어나게 되고 오래 갈 경우 전만 소실이 와서 부작용이 올 뿐 아니라 좌선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게 한다. 이런 사람은 경추베거나 목베개를 이용하여 머리를 뒤로 제치는 동작과 경추 부위의 근육을 늘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해야 한다.

## ②허리를 곧게 한다.

좌선을 할 때 조신(調身)에 대한 강령으로 요골수립 긴찰곡도라는<sup>25)</sup> 말이 있다. 긴찰곡도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음식을 적게 먹고 선을 할 때 공복을 유지하라는 뜻과<sup>26)</sup> 곡도를 움끄러 주라는 것이다.<sup>27)</sup>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해야 선에 도움을 준다. 좌선을 할 때 공기를 들이 마시게 되면 폐가 팽창하면서 횡격막이 내려가야 하는데 배가 부르면 횡격막이 내려가지 않아 복압이<sup>28)</sup> 높아지면서 호흡이 가빠져 선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준다. 곡도가 열려 있으면 기운이 멎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이다.<sup>29)</sup>

### 증의학과

25) 선(禪)의 강령은 식망현진(息妄顯眞), 수승화강(水昇火降)이며 자세는 긴찰곡도(緊繫穀道) 요골수립(腰骨竪立)이다. 대산종사법어 3집, 제3편 수행, 선의 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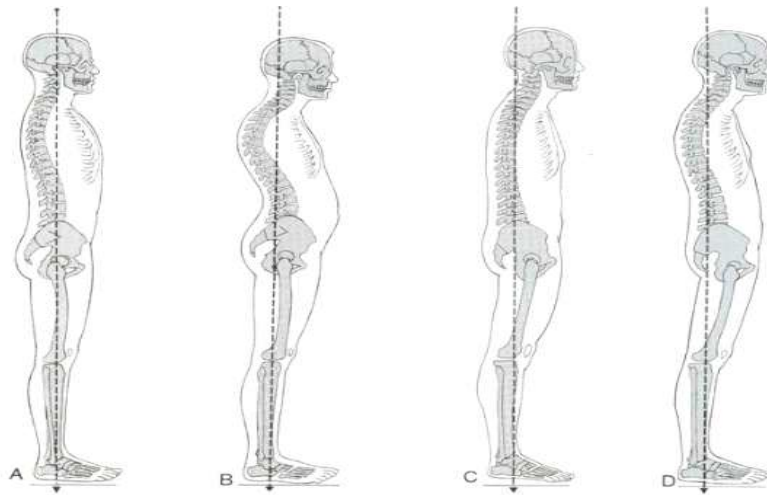
26) 음식을 적게 먹는 수행법. 음식을 급하게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 수행법이다(원불교 대사전).

27) 정귀원-선이란무엇인가 p81, 길도훈-단전주선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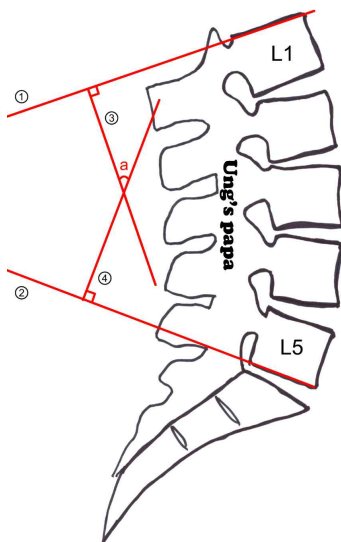
28) 腹壓, intra-abdominal pressure, 복부 내장을 압박하는 복강 내의 압력으로, 복벽·횡격막의 긴장에 의하여 상승하며 모책(努責; 숨을 몰아서 폐 안의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고 흉곽의 호식근이나 복벽근을 강하게 수축시킨 상태)하면 흉내압·복압 모두 심하게 상승한다. 체육학대사전, 2000. 2. 25. 민중서관.

29) 임도현, 긴찰곡도는 곡식의 길을 오무려서 꼭 조이는 것이지 긴찰항문(緊繫肛門)이 아니다. 항문은 문이지 곡도가 아니다. 곡도(소화기계통)는 우리 인체에서 식도에서 직장(식도-위-십이지장-소장-대장-S결장-직장)까지를 말한다. 곡도를 조여야 하는데 곡도를 조일 수 없다. 곡도를 조이려면 직장을 조여야 한다.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회음혈(會陰穴)이 있다. 이 회음을 조이면 직장이 조여지고 항문도 조여진다. 항문을 조이면 직장은 조여지지 않으며 또 오래 조이면 통증이 생긴다. 때문에 보통은 긴찰곡도를 항문을 조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음을 조이는 것이 맞다. 원불교신문, 2012.02.10. 1602호

㉠골격(骨格)적인 측면에서 요골수립은 그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수립이란 사전적인 뜻은 ‘꼳꼳하게 세움’이라고 설명한다. 꼳꼳하게 세운다는 뜻은 보통 일자형으로 전봇대처럼 서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나 요추를 바르게 세운다는 뜻은 요추의 자연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정상인 뼈 골격 ㉡흉추후만.요추전만증 ㉢요추후만증 ㉣ 흉추후만증



그림과 같이 ㉢형을 요골 수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요추는 ㉠형과 같이 앞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가 올바른 상태이며 앉은 상태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을 요골수립이라고 한다. 의학에서는 이를 요추전만각도(또는 요추커브)하여 정상인은 평균 50~60도 보고 있다.<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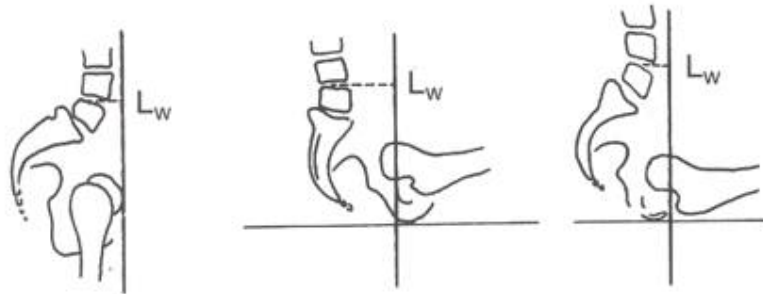
요추커브는 요추 ㉠번(L1)과 요추 ㉤번(L5)을 선을 그어 양평행선을 기준으로 90도를 서로 교차하는 각 (a)을 말한다.<sup>31)</sup> 요추전만각도가 평균각도 보다 높게 나오면 요추전만증이라고 하고 평균각도 보다 낮으면 요추후만증이라고 한다. 요추후만증은 몸을 뒤로 짓히는 것은 어려우나 앞으로 숙이는 것은 쉽고, 반대로 전만증은 뒤로 제치는 것은 쉬우나 앞으로 숙이는 것은 어렵다. 두 가지 증상은 좌선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좌선은 평균 1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고정된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 요추 후만과 전만이 심하게 되면 요추사이로 나오는 신경이 눌리게

30) 출처: <http://ungs-mnf.tistory.com/51>

31) 요추커브는 나이별로 다르며, 50~60도는 2~50대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

되고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을 유발하여 심하면 일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요추 전만증

㉡요추 후만증

㉢정상 요추커브

이런 증상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가 있는데 후천적인 경우는 보통 사고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나 선천적인 바탕에서 잘못된 자세로 이를 가속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요골수립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좌복과 밀접하다. 어떤 방식으로 조복을 앉느냐에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추 전만증 있는 사람이 좌복에 앉을 시 엉덩이를 높게 되면 전만을 가속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앉을 때 엉덩이가 다리부분보다 높으면 안 된다. 요추 후만증 있는 사람이 좌복을 평평하게 하여 앉으면 후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후만인 사람은 전만증과 반대로 증상에 따라 엉덩이가 다리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요추 전만증이 심하면 신장을 압박하여 신장 기능이 떨어 질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①전만증의 올바른 좌복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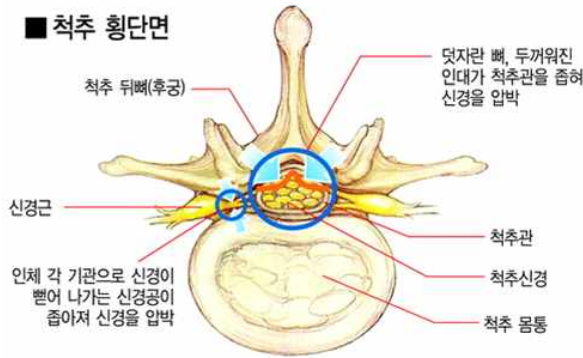
②후만증의 올바른 좌복 상태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앉을 때 무조건 적으로 엉덩이를 높이는 경우는 좌선을 하는 초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장시간을 거치는 경우 요통이 생기고 다리변형 다리저림 및 기타 후유증을 가져 온다. 물론 처음 좌선하는 사람은 뒤를 올리면 편하게 느껴지지만 그런 경우는 평소 입식에 습관이 들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많은 위험

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요골수립과 관련하여 경락과<sup>32)</sup> 내장(內臟) 측면에서 관계가 깊은 것은 명문혈(命門穴)과 신장(腎臟)<sup>33)</sup>이다. 명문은 요추 정중선(正中線) 요추 2번과 요추 3사이 있으며 기경팔맥 중 독맥에 해당한다.<sup>34)</sup> 명문은 글자대로 생명이 드나드는 문으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한다.<sup>35)</sup> 명문혈을 중심으로 요추 앞쪽 양옆으로 신장이 있다. 신장은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 중 크기는 노폐물을 거르면서 뼈와 피를 주관하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이다. 오장 육부에서 물에<sup>36)</sup> 해당되어 좌선 시 수승화강(水昇火降)과<sup>37)</sup> 깊은 관련이 있다. 요추가 바르지 않으면 신장에 무리를 주고 명문혈의 주치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단기간 내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잘못된 자세가 오래 반복될수록 그 후유증이 나타나게 된다.



㉡요골수립은 대동맥<sup>38)</sup>과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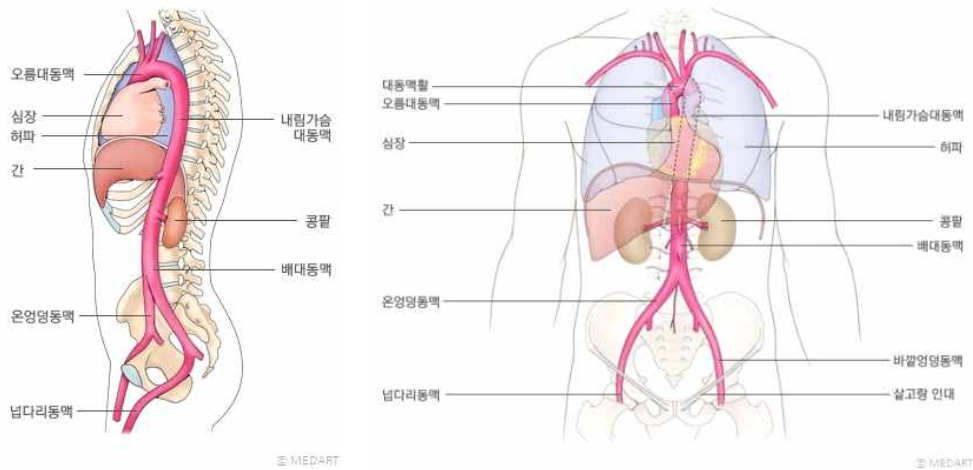
- 32) 한방이나 수기계 치료(手技系治療:침·뜸·안마 등) 때에 활용하는 피부나 근육에 나타나는 중요한 반응점(경혈) 및 이 반응점을 연결한 경로(경락). 두산백과사전.
- 33) 콩팥은 아래쪽 배의 등 쪽에 쌍으로 위치하며 노폐물을 배설하고 산염기 및 전해질 대사 등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이다. 양쪽 콩팥의 총 무게는 전체 체중의 약 0.4%에 지나지 않지만 콩팥의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소실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생명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총 심박출량의 20~25%가 콩팥으로 흘러 들어간다. 콩팥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 구조로서 네프론이 있으며 이는 소변을 생산하는 데 있어 기본 단위가 된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서울대학교병원.
- 34) 기경팔맥(奇經八脈)의 하나. 미추골(尾椎骨) 아래에서 시작하여 척추 속을 따라 올라가다가 풍부혈(風府穴) 부위에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정수리로 나온 다음 이마와 콧마루를 지나 윗잇몸 속으로 들어간다. 독맥은 온 몸의 양경(陽經)을 통솔한다. 수족삼양경(手足三陽經)은 독맥과 연계되며 이를 통하여 온 몸의 양경(陽經)을 조절한다. 독맥은 뇌·척추·회음부와 연계된다. 한의학대사전, 2001. 6. 15. 도서출판 정담.
- 35) 원기를 기르고 신을 보하여 정을 단단하게 하여 허리와 척추를 소통시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구학 사전.

36)

	木	火	土	金	水
오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육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 37) 좌선의 원리로, ‘물 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린다’는 뜻. 하단전(下丹田)인 신장은 뇌수(腦髓)를 기르고 생식(生殖)에 관련되며 물 기운이 머물고 중단전인 심장은 혈액과 심근(心根)의 중추로 불기운이 머무는데, 호흡과 정신집중에 의해 뜨겁고 탁한 불기운을 내리고, 차고 맑은 물 기운을 올린다.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 38) 심장의 원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동맥으로 오른대동맥, 대동맥활, 내림가슴대동맥, 배대동맥으로 이어진 후 하복부에서 두 갈래의 온영덩동맥으로 갈라지면서 끝나는 동맥의 큰 줄기이다. 뇌, 팔 다리, 및 내장기관을 포함하는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모든 동맥들이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온다. 직경 2~3cm의 관 모양이며, 대동맥의 벽은 내막, 중막, 외막의 세 층으로 구성된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이 된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시작하여 척추 안쪽을 타고 내려오다가 요추부분에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진다. 이러한 대동맥은 척추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혈관이 좁아져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sup>39)</sup> 미치게 된다.



요추와 관련하여 좌선을 하는 사람이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좌선 전후로 몸을 풀기 위하여 요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전만증이 있는 사람은 허리를 뒤로 제치는 자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 후만증이 있는 사람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면 안된다. 당시에는 몸이 풀릴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요추가 더 틀어져 큰 후유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요가 강사들이 허리병(요통)을 많이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의 요추 구조상 맞지 않는 자세도 직업상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고자 하는 요가가 더 해롭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 4.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인간의 척추에는 만곡이 있으며, 각각 경추 전만, 흉추 후만, 요추 전만, 천추 후만의 형태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며, 만곡이 소실되면 척추에 걸리는 부하가 증가하여 많은 척추 관련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sup>40)41)</sup> 자신의 골반 상태 대퇴골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좌선을 한다는 것은 자

39) 순환장애(circulatory disturbance):체내에서 혈액과 림프액이 순환함으로써 세포나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산소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물질대사에 의해 생긴 이산화탄소·젖산 등의 분해산물의 배출이 이루어진다. 만일 이들 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세포나 조직이 장애되어 원활한 생명활동이 영위되지 않게 된다. [과학백과사전]

40) 경추 전만 정도 및 연령에 따른 경추 추간판 탈출 양상 분석 연구. 대한침구의학회지 제32권 제3호 (2015년 9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교실. p113.

41) 척수(spinal cord)와 신경 뿌리(nerve roots)를 경막(dural tube, dural tissue)이 둘러싸고 있다. 척추의 가동성이 떨어지거나 배열이 틀어지면 이 경막에 긴장이 오게 되고 경막을 뚫고 나오는 신경 뿌리에 자극을 준다. 원문에서 "이 뼈들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위치가 변형되면 척수와 뇌에

첫 여러 부작용 및 후유증을 가져 올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부분이 미추(尾椎꼬리뼈)다.<sup>42)</sup> 미추가 틀어지면 좌선 할 때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sup>43)</sup> 미추가 틀어지면서 미골통 증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쭈시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당기는 듯한 느낌,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미추 부분이 그러다 보니 이런 상태에서 좌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앉는 동작 자체가 미골을 건들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심한 경우에는 단순하게 앉을 때뿐 아니라, 보행시에도 쭈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증상이 악화되면 틀어져 있는 미골이 항문을 자극하게 되어 배변시에도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실제 좌선을 장기간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그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다. 정전 좌선의 공덕을 보면 10가지로 밝혀있다.<sup>44)</sup> 열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1~5항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6~10항은 마음(정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좌선을 하면 반드시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 좌선을 하는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먼저 조신(調身)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물론 일상생활이나 선천적 원인이 있겠지만 좌선을 하면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하지만 좌선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자세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좌선은 몸을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이다. 몸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혈액 순환 장애와 신경 흐름에 장애를 주어 장기적으로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여 몸에 병고가 발생한다.

---

독성 구심성 자극이 가해져 그 결과 교감신경계의 긴장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독성 구심성 자극(noxious afferent stimuli)'은 '부정적인 형태의 자극'이라고 보시면 된다. 척추의 배열이 틀어지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진다. 손을 땅바닥에 문지르면 마찰이 생기며 열이 난다. 비슷하게 사람 몸의 조직은 반복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염증반응이 생긴다.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조직에 열이 나고, 부어 오르고, 통증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체내물질(예를 들어 히스타민)도 독성 자극(noxious stimuli)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극은 체성신경계에도 자극을 주지만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긴장을 끌어올린다. 교감신경계의 긴장은 결국 몸 전체의 긴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척추의 배열과 풍부한 움직임은 신경계를 건강하게 해주어 몸 전체의 항상성을 유지해준다. 평상시 적당한 스트레칭과 폐활량 운동, 척추근력 강화운동 등을 통해 바른 자세, 바른 척추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신경계 기능장애의 원인(A common source of nervous system dysfunction)

[Advanced Myoskeletal Technique]/Erik Dalton/2005/p6. 번역 Bodywork Maestro 연구소장 최광석

42) 영치뼈 아래 달려 있는 척추의 마지막 부분으로, 대개 4~5개의 작은 척추 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하등 동물에서는 꼬리뼈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인간에서는 퇴화되어 일부만 남아 있다.

43) 원인:미골통은 장기간 동안의 앉은 자세, 출산 혹은 넘어짐으로 입는 손상 등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미지의 원인으로 자연히 발생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Bergen Pain Manacement, Dr. Ragukonis.

44) 1. 경계 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2. 육근 동작에 순서를 얻는 것이요, 3.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택하여지는 것이요, 4.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5.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6.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7.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8.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9.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10. 생사에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정전 좌선의 공덕.



### Ⅲ. 결론

본 연구를 하면서 정산종사가 수심정경을 만들면서 [先正坐體하야(坐必盤坐)] 반드시 쟁반같이 앉으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 반좌와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좌선의 방법 1항에 나타난 내용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좌선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밝힌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개인적으로 좌선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지도자 위치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하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 지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선을 논할 때 조신과 조식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조심은 이야기 한다. 이는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땀박질을 하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30년 이상 좌선을 한 내 자신도 지금도 좌선에 대해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다. 정타원 이정은 교무가 대산 종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한적이 있다. “종법사님 저는 좌선을 40년간 했어도 잘되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산종법사는 “10년만 더 해봐라.”라고 하셨다. 10년 후 이정은 교무가 대산 종사에게 “이제 좌선이 잘 됩니다.”라고 보고 하였다는 것을 직접 받들었다. 본 소고는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더 깊이 연마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과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세에 대한 교정 부분과 반좌 및 자세에 대한 벗어난 주제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구체화 하지 않았다. 교정은 지면을 많이 차지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전문적인 분야며 일반인들은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나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고 생략하고 압축한 분야는 다른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좌선의 첫째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라 부족하지만 문자화 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더 깊게 들어 갈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대체적인 것은 밝혔기 때문에 반좌 및 올바른 자세에 관한 내용은 이해가 된다고 본다. 연구를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좌선은 단순하게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좌선은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좌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무리하게 몸을 사용하는 것,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는 것, 과식을 하는 것,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 과도한 감정에 빠지는 것 등이 그것이다.

몸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아프면 병원에 간다. 비록 병원에서 완치를 하였다 할지라도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평소 가벼운 운동과 함께 식습관을 잘 조절하면 병 또한 얼마든지 예방 할 수가 있다. 좌선하는 사람이 몸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좌선은 몸을 완전하게 이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일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어느 곳이 멎었거나 소통되지 않으면 일심으로 들어가기 힘들다. 몸이 멎치거나 소통되지 못하는 증상은 좌선을 할 때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가 몸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런 몸의 불편함은 지도인에게 문답감정을 통해 가벼운 증상일 때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한 일이다. 현대의학은 치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예방은 스스로 해야 한다. 좌선은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몸의 변화, 몸의 자세, 몸의 환경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을 하는 사람이 몸에 대한 기초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짧은 의학 상식을 기초하였기 때문에 향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정귀원, 『선이란무엇인가』, 원불교출판사.

길도훈, 『단전주선』, 씨아이알.

유대호, 『수기요법』

이광정, 『정전 좌선의 방법 해설』, 원불교출판사, 2016.

### 2. 논문류

이원준, 2010년 아시아 태평양 관절염학회(APOA, Asia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

정귀원, 「수심정경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10.

Erik Dalton, 「신경계 기능장애의 원인(A common source of nervous system dysfunction)」, 2005.

안시호, 「두개척추각도의 전방머리자세 측정에 대한 타당화 연구」, 2014.

감수 : 박영준, 정형외과 전문의, 원광종합병원 병원장.

# 1910, 20년대 전남 영광지역의 민족사회 · 경제운동과 종교의 공공성

김민영  
(군산대)

## I. 머리말

일제 강점기 특히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조선사회의 식민지적 경제기반은 더욱 공고해져간다. 아울러 이 시기 이른바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 등으로 특징되어지는 식민정책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격동의 사회경제적 변동을 감내하며 고단한 일상적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정황 가운데 다양한 민족사회, 경제운동을 전개시켜 나간다.<sup>1)</sup>

한편 근대시기 한국의 종교도 국내외적 경제사회의 변동 가운데 주체적 인식을 하며 대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문명에 대한 나름의 응전이였다. 즉 근대 한국의 종교 또한 단순히 신앙의 이념적 표출에 머물지 않고 ‘이념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대응, 새로운 사회와 국가질서의 추구 등을 통해 근대와 대면하는 지난한 몸부림을 전개시켜 나간 것이다.<sup>2)</sup>

더욱이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상적 삶과 관련된 제반 민족사회운동, 경제운동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획득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 역시 한국 종교 나름의 공공성 확보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각 개별적인 종교적 표상 가운데 교의적인 정당성을 동원하여 다양한 방식의 참여라는 형태를 지니게 마련

---

1)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은 반드시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민족운동은 민족의 독립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운동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운동은 청년, 노동, 농민운동 등과 같이 전근대적 사회의식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자, 농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운동을 의미한다. 더욱이 사회운동 가운데에는 항일농민운동처럼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당시 현실의 반영이 필요하다. 박찬승, 「일제하 영광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0권, 2002, 344-345쪽 참조. 아울러 이 시기 대중적 경제운동의 범주에는 물산장려운동과 협동조합운동 등이 중심을 이루지만, 여기에서는 ‘근대 한국 종교의 공공성 재구축’이라는 논지에 맞추어 국채보상운동, 절제와 일상생활개선운동, 저축조합운동 등에 한정하고자 했다. 일제 강점기 경제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오미일, 『경제운동』, 경인문화사, 2008.

2) 이와 관련하여 동학 이후 근대 한국종교가 한국사회의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상, 종교, 정치사회, 문화, 교육의 전 부문에서 추동해 간 역사적 과정을 ‘공공하다’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공공성의 의미, 종교와 공공성의 관계, 그리고 그 공공성의 특징을 논구하는 작업으로는 다음이 참고로 된다.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근대 한국 개벽종교를 공공하다』,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8.

이었다. 즉 근대 한국 종교의 민족사회운동과 경제운동의 인식과 참여 배경 등에 대한 탐구 역시 자연스럽게 개별 종교의 사회윤리, 종교와 사회관계, 종교와 사회경제발전 등 공공성의 보편적 실천윤리를 드러내는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본인식 가운데 1910, 20년대 전남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사회운동과 경제운동의 전개와 함께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종교지형 및 그 공공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이 시기를 살피고자 하는 것은 1910년의 일제 강제병합과 1919년의 3.1운동을 전후하여 지역사회 역시 큰 전환기적 변동 가운데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간적으로 전남 영광지역을 주목하는 것은 일찍부터 불교의 도래지역으로 일컬어졌을 뿐 아니라, 동학, 개신교, 천주교, 불법연구회(원불교) 등이 교차하며 공존했던 독특한 종교문화 및 사상적 지형 때문이기도 하다.<sup>3)</sup>

또한 이 시기 전남 영광지역은 민족사회운동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전후하여, 일련의 민족사회운동과 경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한곳이다. 무엇보다 동학을 위시하여 의병과 3.1운동은 물론 청년에서 농민, 노동운동에 이르는 민족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지역이었다. 나아가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은 물론 절제와 생활개선 및 저축조합운동 등의 전개도 특징적이었다. 이는 정치사회적인 측면의 민족정체성 수호는 물론 식민지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조선 침투에 대한 경계와 대응 및 계몽, 토산장려 등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요컨대 근대가 열리는 여명의 시기 전남 영광지역은 ‘한국의 역동성이 새겨진 땅’으로, 동시에 ‘낡은 시대와 싸우다 스러진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있는 곳’이었다. 즉 이 시기 영광은 ‘동학의 소굴’이었으며 ‘의병항쟁의 주무대’였을 뿐 아니라, 여러 종교지형 가운데 민족사회운동 및 경제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시켜나간 이름 그대로 ‘신령스러운 빛’의 땅이었기 때문이다.<sup>4)</sup>

이상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1910, 20년대 한국의 종교가 민족 및 사회경제운동 가운데 추구하려 했던 가치, 또한 선택한 전략과 전술에서 들어나는 공익성, 나아가 그들의 의식과 행위에 스며있는 공공정신의 내면화와 실천에 대한 물음에 대해 하나의 실마리와 디딤돌이 제공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장소성’<sup>5)</sup>을 지

3) 이에 대해서는 각 개별 종교 영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더욱이 불법연구회와 관련해서는 방언사업, 저축조합 등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근대 한국 종교의 경제적 공공성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조사 연구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4)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가 참고로 된다. 『경향신문』, 2017년 9월 22일자 「붉게 물든 꽃무릇 천지, 곳곳에 서린 동학과 의병 이야기」, “눈으로 본 영광은 풍요와 평화보다는 새 시대로 건너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근대 한국의 역동성이 새겨진 땅이었다. 동시에 낡은 시대와 싸우다 스러진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략) 100여년 전 영광은 ‘동학의 소굴’이었으며 ‘의병항쟁의 주무대’였다.”

5)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의해 형성돼왔다. 오늘날 거의 모든 지역에 사는 인간이 거둔 사회적 발전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산맥과 하천망 같은 물리적 지형뿐 기후, 인구, 문화,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치경제는 물론 언어, 교역, 종교 등을 포괄하는 인류의 사회적 발전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때로는 그것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새로운 힘이 되기도 한다. 팀 마샬 지음, 김미선 옮김, 『지리의 힘』, 사이, 2016, 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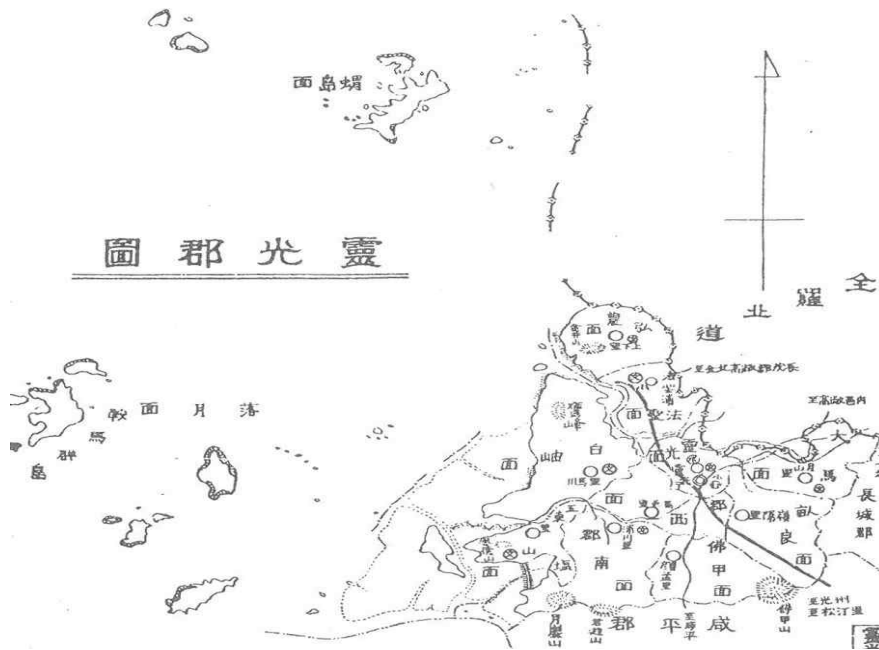
닌 전남 영광지역 사례연구의 축적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 Ⅱ. 1910, 20년대 전남 영광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전라남도의 서북쪽에 위치한 영광지역은 예로부터 동쪽은 장성군, 서쪽은 서해의 칠산바다, 남쪽은 함평군과 접해 있었다. 또한 북쪽으로는 전북 고창군과 맞닿아 있었다. 해안선 길이도 200km가 넘으며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한 곳이다. 그만큼 해륙의 물산이 풍성하여 예로부터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다(이재언, 2015).

1910년대 영광군의 행정구역은 1914년 이전에는 26개 면, 803개 동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1914년 이후 14개 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데, 중앙의 영광면, 동부의 대마면·묘량(敎良)면, 남부의 불갑면·군남면, 해안가에 인접한 서부의 군서면·홍농면·법성면·백수면·염산면, 그리고 섬으로 이루어진 낙월면·위도면 등으로 구분된다.<sup>6)</sup>

〈그림1〉 1910년대 전후 시기 영광군도



출처 : 染川覺太郎, 『全南事情誌』, 全羅南道事情誌刊行委員會(1930), 930쪽.

한말이후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영광지역에는 우선 읍내를 중심으로 신학 문 교육이 시작되어 지식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영광지역의 신교육은 한말의 사립학교 설립운동과 1920년대 이래 전개된 사립학교, 중학교 설립운동 등에 의해 그 기반

6) 당시 영광에는 60여개의 섬이 있었다. 그 가운데 10여개의 유인도와 50여개의 무인도서가 있었다. 그만큼 영광은 섬과 바다와 산, 그리고 들이 넉넉한 곳이었다. 특히 위도는 고종 33년인 1896년, 전라도를 전라남북도로 개편할 때 고군산군도와 더불어 전남 지도군에 편입되었지만, 1914년 지도군이 없어지자 영광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63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전북 부안군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재언, 앞의 책, 254쪽.

이 확대되고 있었다.<sup>7)</sup>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영향은 이후 영광지역의 민족사회운동과 경제운동 등의 전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부문을 간추려 보면, 우선 1907년에 영광읍 도동리에 있던 노인당 자리에 한일 학원(韓日學院)이 세워진다. 이듬해인 1908년에는 향교의 명륜당에 광흥학교(光興學校)가 설립되어 50명의 학생을 모집, 신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광흥학교(교장 편용무)는 1910년 5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고 그 자리에 영광공립보통학교가 들어서게 된다.<sup>8)</sup> 또한 법성포에서도 1907년 법성사립학교가 옛 조창(漕倉) 자리에 세워진다. 이 학교는 1920년 법성포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영광지역 공립학교 설립현황은 <표 1>처럼 정리될 수 있다.

<표1> 1910년대 전후 영광소재 공립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 연월	직원		학급 수	남 학생수	여 학생수	학생 총계
		일인	조선인				
영광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11.5	3		3	45	45	90(日人)
법성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12.10	2		2	32	26	58(日人)
영광공립보통학교	1911.6	5	8	12	514	161	675
법성포공립보통학교	1920.9	2	4	6	306	48	354
군남공립보통학교	1921.9	1	3	4	199	12	211
대마공립보통학교	1922.5	1	2	3	112	12	124
백수공립보통학교	1923.5	1	3	4	181	10	191
홍농공립보통학교	1927.4	1	1	2	78	3	81
염산공립보통학교	1926.9	1	1	2	130	2	132
영광공립농업보습학교	1927.5	2	0		97		97

출처 : 染川覺太郎, 『全南事情誌』, 앞의 책, 940~941쪽.

당시 공립학교로는 1911년 주로 일본인들을 위한 영광공립심상고등소학교와 조선인을 위한 영광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한다. 이듬해 1912년에는 법성포에 일본인을 위한 법성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개교한다. 하지만 조선인을 위한 보통학교는 3·1운동 이후인 1920년대에 들어와서야 각 면에 설립되기 시작한다.

한편 1910년대 초 영광군의 총호구수 및 인구를 보면 각각 15,125호에 70,959명으로 확인되고 있다.<sup>9)</sup> 이후 1920년대의 인구추이는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1920년대 중후반 무렵에 이르면 영광지역의 총인구는 8만명을 넘고 있다. 특히 이 시기 영광지역에 1천여 명을 전후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영광 백수평야의 수리조합 공사와 관련하여 일본인 등이 증가한 것으로,<sup>10)</sup> 기타 외국인은 대

7) 박찬승, 앞의 논문.

8) 당시 광흥학교의 1회 졸업생 가운데에는 뒤에 영광에서 3·1운동과 청년운동, 노농운동 등을 주도하게 되는 정인영(鄭仁瑛)·김은환(金濼煥) 등이 들어있어 그 역할이 주목된다.

9) 이는 1910-1912년의 평균 수치임. 정승진, 『한국근세지역경제사- 전라도 영광군 일대의 사례』, 경인문화사, 2003, 21쪽.

10) 영광수리조합은 1924년 창설된 산미증식계획기의 산물로 몽리면적 2,600정보의 저수지형 조합이다. 그 설립과 관련해서는 극심한 수리조합반대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승진, 앞의 책 참조.

부분 중국인이었다. 그들은 수리조합 공사장의 노동자로 거주하고 있었다. 거주지를 보면 일본인은 전체의 태반이 영광읍내와 법성포에 살고 있었다.

〈표2〉 1920년대 영광 거주 인구와 호수 (단위 : 명, 호, %)

연도	조선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25년	15,265	79,667	302	940	43	895	15,610	81,502
	97.8	97.7	1.9%	1.2	0.3	1.1	100.0	100.0
1927년	15,093	79,298	237	873	20	94	15,350	80,265
	98.3	98.8	1.5%	1.1	0.0	0.1	100.0	100.0

출처 : 染川覺太郎, 『全南事情誌』, 앞의 책, 932쪽.

〈표3〉 1920년대 영광지역의 조선인과 일본의 토지소유 현황(1925년)

소유자별	논(정보)	밭(정보)	합계(정보)	법정지가(천원)
조선인	6,402	4,104	10,506	3,883
	(85.0%)	(61.3%)	(73.9%)	(77.2%)
일본인	1,130	2,588	3,718	1,149
	(15.0%)	(38.7%)	26.1%	22.8%
합계	7,532	6,692	14,224	5,032

출처 : 박찬승, 앞의 논문, 350쪽에서 재인용.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영광군의 주요 산업은 농업 가운데 미곡과 면화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경지면적을 보면, 전체 경작지의 절반가량이 소작지였다. 특히 영광수리조합의 완성과 함께, 중견농가라 할 수 있는 자작농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음이 특징적이다.<sup>11)</sup>

또한 1920년대 중반의 자료이지만, <표 3>을 통해 영광지역 조선인과 일본인의 토지소유현황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이르면 영광 거주 일본인들은 인구비율은 2% 정도였지만, 15%에 이르는 논 소유와 함께 특히 밭의 소유는 거의 40%에 이르고 있어 식민지적 토지소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영광읍에는 상설점포가 있기는 하였지만, 시장 개시일 이외에는 그리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내의 장시로서 성안의 군시, 남면 15리 지점의 포천시, 법성포의 법성시, 불갑면의 입석시 등 4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1) 김민영, 「1920, 30年代 全南 靈光地域 民族運動의 社會經濟的 基盤」, 국제문화학회, 『역사와 사회』 16권 16호, 1996.

〈표4〉 1920년대 전남 주요 지역의 상거래 추이 (단위 : 圓)

구 분	1925년	1926년	1927년
목포	63,348,944	69,129,950	53,423,143
광주	17,232,430	16,488,200	9,319,900
순천	3,530,000	3,763,000	3,760,000
여수	9,731,517	9,610,018	11,137,200
나주	3,699,260	3,781,022	3,459,680
영산포	4,782,699	4,761,526	4,369,974
송정리	4,749,940	3,854,000	1,290,750
장흥	733,900	741,500	874,950
별교	877,800	7,100,575	6,654,146
법성포	1,786,877	2,031,734	2,484,505
장성	1,694,650	1,156,100	1,173,200
담양	1,145,978	1,177,345	1,149,933
함평	851,880	942,200	1,155,996
남평	1,106,630	1,197,036	1,185,423
제주	1,270,000	1,350,016	1,283,908

주: 장성은 鈴泉里, 月坪里임.  
출처: 染川覺太郎, 『全南事情誌』, 앞의 책, 254쪽.

또한 <표 4>를 통해 1920년대 전남 주요 지역의 상거래 추이를 볼 때, 목포가 단연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를 이어 광주를 제치고 여수가 뒤를 잇고 있다. 또한 별교와 나주 및 영산포도 매우 중요한 거래지로서 나타나 있어, 당시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식민지시기 상업전개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법성포 역시 그에 미치지지는 않지만 1920년대에도 계속하여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영광지역 법성포의 사회경제사적 특징을 살피려면 역시 조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영광지역에 조창이 처음 생긴 것은 992년(고려 성종 11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조운제도가 정비를 이룸에 따라 13창이 있었다.<sup>12)</sup> 조선시대에 이르러 법성창은 세조 무렵에 초설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분명한 전거가 살피지지 않아 성종 때 초설된 것으로 보인다.<sup>13)</sup> 특히 1512년(중종 7년)에 나주 영산창이 혁파되자 법성창 관할 읍은 28읍으로 증가하였고, 17세기 중반이후 12읍 내외로 축소 운영되다가 1890년 혁파되기에 이른다.<sup>14)</sup>

아무튼 법성포는 구한말 1895년만 해도 가구 수가 715호나 되는, 영광읍보다도 오히려 더 큰 고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육로가 발달되고, 철길이 생겨나면서 과거의 영광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사실 법성포는 항구로서 수심이 점점 얕고 간만의 차가 심해서 선박의 출입이 불편한 곳이었다. 거기에 조창의 기능을 육로에 빼앗기게 되자 옛 영광은 점차 시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12) 법성향지편찬위원회, 『법성향지』, 삼남교육문화사, 1988, 128-131쪽.  
13) 변남주, 「영광 법성포 조창과 수군진의 변화」, 『도서문화』44, 2014, 91-131쪽.  
14) 조창 관련 주요시설로서 동조정, 세곡고, 제월정, 선소, 해안 석축 등이 그 자취로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수군진 관련 주요시설로 법성진의 남문, 객사, 동헌, 군기고 등도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1807년의 대화재 발생, 1895년 수군진 혁파 등으로 황폐화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영광군의 상업 중심지는 단연 법성포였다. 법성포는 영광은 물론 전북 고창지역의 물산까지 모이고 흩어지는 곳으로 특히 수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했다. 특히 성어기에는 많은 어선이 몰려들고 중매인, 오지의 어상, 요정, 잡화상 등이 모여들어 상대적으로 ‘번성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sup>16)</sup>

한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1910년대 전후 시기 지역의 상설점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표 5>를 참고하면, 영광지역 역시 목포, 광주, 나주, 해남에 이어 중요한 지방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광지역은 곡물상이 목포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되는 25개소 나타난다. 또한 일본인들의 의류를 다루는 오복점포가 10개에 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거주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전남 영광군은 여전히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고, 자본주의적 상공업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설립된 조선인 경영 상업관련 회사를 살펴보면, 법성포물산주식회사(조희경)와 영광창고금융주식회사(조설현)가 대표적이다. 이후 주식회사 진명사(허옥)도 그 활동이 두러진다.

---

15) 이를 반영하여 이후 법성포의 항구의 기능마저 9km 북쪽에 있는 계마항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재은, 앞의 책.

16) 칠산어장과 법성포는 조기의 산란지이며 굴비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조기처럼 짧은 어기에 높은 어획고를 올리는 어종들은 일시에 어장이나 인근 지역에 어선과 운반선이 밀집했다. 이를 파시라 하는데,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 상인(객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칠산어장의 대표적인 파시로는 법성포 인근의 목맥파시와 위도파시가 있으며, 낙월도와 송이도와 안마도에도 크고 작은 파시들이 형성되었다. 김준, 「칠산어장과 조기파시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 34, 2009, 179-200쪽.

〈표5〉 1920년대 전남지방 상설점포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잡화상	곡물상	주장유	선어	해산물	신탄	오복	신발	약종	금물	도자기	과자	야채	문방구	시계	제목	자전거	비료	서적	기타	합계
목포	104	57	28	10	4	9	44	20	6	10	7	13	-	-	3	4	3	1	-	19	342
광주	80	9	4	3	-	3	25	11	11	11	5	10	3	7	5	6	8	3	2	9	215
나주	83	23	4	-	9	-	22	5	22	8	1	8	-	1	3	3	7	3	-	5	207
담양	30	3	2	-	-	-	4	-	2	1	2	3	-	-	-	-	-	-	-	-	47
곡성	14	2	2	-	-	-	4	-	5	-	-	1	-	-	-	-	1	-	-	-	29
구례	20	-	-	-	-	-	3	-	-	-	-	-	-	-	-	-	2	-	-	-	25
광양	18	3	-	-	-	1	2	-	2	1	-	4	-	1	-	-	2	-	-	-	34
여수	22	3	1	-	-	-	-	-	3	1	-	-	-	1	-	2	-	-	-	4	37
순천	18	3	-	-	-	-	3	4	3	2	3	3	-	2	2	4	2	5	-	3	57
고흥	41	4	1	-	-	-	11	-	6	-	1	-	-	-	-	-	-	-	-	1	65
보성	31	13	-	-	2	-	14	-	4	5	-	5	-	2	-	5	4	-	-	10	95
화순	22	-	-	-	-	-	3	-	-	-	-	4	-	-	-	-	-	-	-	-	29
장흥	33	-	-	-	-	-	-	-	3	1	-	-	-	-	1	1	2	-	-	3	44
강진	25	-	-	-	-	-	-	-	-	-	-	2	-	1	-	-	-	-	-	-	28
해남	94	-	-	-	-	-	6	1	4	2	-	3	1	-	-	1	2	-	-	1	114
영암	54	5	2	-	-	-	7	-	-	-	-	-	-	-	-	-	2	-	-	1	71
무안	2	1	-	-	-	-	-	1	-	-	1	-	-	-	-	-	-	-	-	2	61
함평	30	4	-	-	-	-	5	-	6	-	-	3	-	-	-	-	2	-	-	-	50
영광	32	25	3	-	2	-	10	3	2	2	-	6	-	-	2	2	1	-	-	3	83
장성	30	8	2	-	-	-	15	-	2	-	1	2	-	-	-	3	2	1	-	2	68
완도	27	4	1	1	-	1	2	-	-	-	-	3	-	-	-	-	-	-	-	-	39
진도	52	-	-	-	-	-	6	1	1	-	-	2	-	-	-	-	-	-	-	-	62
제주	162	8	-	-	-	-	20	2	12	3	2	6	-	-	2	3	1	-	2	6	229
합계	1,076	166	51	14	17	14	206	47	95	47	22	79	4	14	18	34	41	13	4	69	2,031

출처: 染川覺太郎, 『全南事情誌』, 앞의 책, 257-258쪽.

〈표6〉 1910년대 전후 영광지역에 설립된 주요 회사

회사명	설립	자본금	목적	사장
법성포물산 주식회사	1919.8	5만원	수산물매매, 위탁매매, 제조, 漁具판매, 물자의 대여 운송	曹喜暲
靈法전기 주식회사	1926.12	15만원	전등, 전력공급용 기구의 판매, 대부	小倉 武之助
月陰농산 합명회사	1923.10	10만원	농림, 토지매매 및 개간, 비료대부, 금융	朴正煥
靈光창고 금융주식회사	1926.12	18만원	창고, 정미 및 부대사업, 금융, 상품매매	曹僣鉉

출처: 染川覺太郎, 『全南事情誌』, 앞의 책, 945쪽.

또한 당시 영광지역의 공업으로는 정미소 등이 6개소 있었다. 그밖에 법성주조주식회사(김상하) 등도 설립되어 주목을 받는다. 즉 영광지역에서도 1920년대를 지나며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금융업, 창고업 등과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설립된 주요 회사들을 간추리면 <표 6>과 같다.

요컨대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영광지역에는 군청, 면사무소, 경찰서, 지방 법원 출장소, 수리조합, 우편소, 군농회, 금융조합, 삼림조합, 어업조합, 축산동업조합, 학교조합 등 근대적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후술하겠지만 1910년대 전후 시기 영광지역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민족사회운동과 경제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일찍부터 전래된 불교는 물론 동학, 기독교, 천주교, 불법연구회 등의 일정한 종교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 Ⅲ. 1910, 20년대 전남 영광지역의 민족사회 및 경제운동

역사적으로 영광지역은 일찍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웃한 전북 무장현(茂長縣)과 함께 동학군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sup>17)</sup> 또한 의병운동을 비롯하여 3.1운동, 기타 사회경제운동도 활발한 곳이었다. 더욱이 식민지 시기 영광에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인 농장이 진출하여 수리조합 등이 개설되었다. 그 가운데 농민들의 항일운동을 비롯하여 청년, 노동운동과 저축조합운동 등 경제운동도 활발히 전개된 지역으로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민족운동이라는 범주에서 동학 및 의병운동, 3.1운동에 대해 정리하고, 기타 노동, 농민, 청년운동 등을 사회운동의 범주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운동의 측면에서 국채보상운동과 절제와 생활개선 및 저축조합운동 등을 중심으로 영광지역이 갖는 종교적 지형 가운데 전개된 근대 한국 종교의 사회경제적 공공성과 그 지역적 기반에 대해 기초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1. 영광지역의 민족사회운동

영광은 다른 지역보다 빠른 1880년대 말부터 동학이 포교된 지역의 하나로 1894년에 전개된 동학농민운동의 주무대였다. 영광의 동학교도들은 이미 1893년에 보은취회(報恩聚會)는 물론 원평취회(院坪聚會)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1894년 전봉준의 고부농민봉기에 이어지는 ‘무장기포(茂長起包)’ 등 가장 주도적이며 대규모로 참여한 ‘동학농민운동의 주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법성포의 경제적 기반과 피폐상 가운데 영광의 동학조직이 1880년 전후부터 확고하게 뿌리내려 전근대적 사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의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운동의 진원지인 전북 무장 등과의 긴밀

17) 영광에는 1880년대 말이나 1890년대 초에 동학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란기록>취어(聚語)에 보면 ‘1893년 음력 3월27일 아침에 호남의 영광 등지에서 100여 인이 도착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박찬승, 앞의 논문.

한 관계 속에서 다수의 지도자가 배출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영광지역은 가히 ‘동학의 대소굴’로 지칭될 정도로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한 만큼 그 피해도 다른 지역보다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8)</sup>

한편 의병운동은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부터 국권이 상실된 1910년대 이후 독립군 전쟁으로 전환되기까지 4기에 걸쳐 줄기차게 전개되었다.<sup>19)</sup> 제1기 의병운동 가운데 영광에서도 밀접하게 후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2기 때는 영광에서도 김용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의병운동을 기록한 『의소일기(義所日記)』는 당시 항일구국운동의 실상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후 제3기 의병운동 때 호남에서는 1907년에 기삼연을 맹주로 한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가 결성되어 다른 지역보다 가장 강한 대중적 기반을 토대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호남의병진은 영광 유생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속에서 결성된 것으로 영광의 도통령(都統領) 김용구 등이 지도부의 중심축을 구성하였다.

특히 이들은 매우 강한 내부의 결속과 조직력을 가지고 각지에서 유격전술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김용구부대는 호남 의병진과의 연합작전은 물론 독립적으로 일제와 교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아들 김기봉(金起鳳)이 순국한 후 그 자신도 일본군 토벌대와 교전하던 가운데 총상을 입는 등 영광 출신의 여러 의병장들은 줄기찬 항쟁을 전개했다.

이처럼 호남은 가장 격렬하게 의병전쟁을 전개하여 일제의 지배를 근저에서 위협한 지역으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곳이었다. 특히 영광의 의병운동은 김용구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학농민운동 과 마찬가지로 호남의 주축을 이루었다.

영광지역의 3.1만세운동은 영광면에서 세 차례에 걸친 시위, 법성면에서 한 차례 시위가 확인된다.<sup>20)</sup> 영광면에서는 3월 14일, 15일 27일 세 차례 발생하였다.<sup>21)</sup> 영광의 만세시위 결과로 재판에 회부된 이는 모두 17명에 달한다. 영광면의 시위는 이후 법성을 비롯하여 백수, 군서, 군남, 흥농, 대마, 묘량면 등지로 확산된다.

이처럼 영광의 3·1운동은 이후 민족독립운동의 고양과 독립쟁취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3·1운동 과정에서 영광·법성 보통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활동은 주도적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민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자부한 항일운동의 선봉으로 이후 1926년의 6·10만세운동에 이어 1929년에는 광주학생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영광지역은 동학과 의병운동을 시작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호응하여 수차례 봉기하였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후 펼쳐지는 사회운동인 청년운동·노농운동·사상운동·문예체육운동·여성운동의 중심이 되었다.<sup>22)</sup>

18)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 동학농민 혁명사』, 전라남도, 1996. 영광군지편찬위원회, 『영광군지』, 2013(영광군홈페이지 참조).

19) 영광군의 의병과 관련해서는 영광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참조.

20) 박찬승, 앞의 논문.

21) 이 시위 과정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정부기록관에 남아있다. 이는 모두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이다. 이상 박찬승, 앞의 논문, 366-367쪽 참조.

한편 1919년의 3·1운동 이후 영광의 사회운동은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미 영광에서는 광흥학교와 법성보통학교 등이 설립되어 신교육을 통해 독립의식을 환기시킴으로써 1910년 이후 사회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3·1운동 이후 운동의 주도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영광지역에서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정치 가운데 애국계몽적 실력양성운동이 전개된다.<sup>23)</sup> 이는 민족교육운동을 시작으로 여러 운동으로 확산된다. 그렇다면 영광의 교육운동이야말로 한말 이후 신교육이 시작되면서 일련의 신지식층이 형성되고, 이들과 학생들의 주도로 3·1운동이 전개된 후 각 분야에 걸친 영광의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영광의 사회단체들은 1916년에 결성된 영광청년회 영광청년회를 모체로 각 분야의 단체와 활동으로 분화되어 전개된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영광(연합)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상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영광이라는 지역성을 넘어 청년운동의 ‘호남의 이상향’으로 칭송되었으며, 전국적인 항일구국운동의 선도체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sup>24)</sup>

이처럼 영광의 사회운동은 각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당시 영광청년회는 노동·농민운동 외에 1910년대부터 체육활동을 전개한 후 문예회·저축계 조직·위생과 농촌개발 교육·방역사업·금주와 금연·토목사업을 통한 빈민구제·한글 보급과 야학·음악과 연극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의 자급자족·국산품 애용·소비절약·금주·금연 운동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앞으로 일제 상업자본의 횡포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나 민족산업의 육성과 민족자본의 형성을 통한 경제자립운동으로 직결된 영광의 종교사회운동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sup>25)</sup>

## 2. 영광지역의 경제운동<sup>26)</sup>

### 1) 국채보상운동

일본은 1894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적극적인 차관공여(借款供與)를 제기하여 수차

22) 박찬승, 앞의 논문.

23)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24) 『동아일보』, 1922년 7월 31일자 「영광청년회 활동 호남지방의 이상향」.

25) 특히 한글로 간행된 동아·조선일보도 언론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당시 영광보통학교 학생으로 3·1운동을 주도한 후 평생 항일운동에 섰던 조철현(曹喆鉉)과 정현모가 동아일보 영광지국의 기자였던 사실로 미루어 영광의 사회운동에 있어서 언론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찬승, 앞의 논문.

26)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 영광지역에서 전개된 일련의 경제운동을 ‘산업운동’이라 하여 소개된 자료도 있어 참고로 된다. 특히 이는 식산조합, 목공상회, 산업조합, 신용조합, 삼립조합, 금융조합 등을 비롯하여 제조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로 넘기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고로 된다. 이기태, 「일제시기 영광지역의 사회운동-신문 기사를 통한 향토사 연구사례-」, 영광향토문화연구회, 『향맥』제10호, 1997.

례에 걸쳐 차관을 성립시켰다. 일본의 차관 공세에 따라 우리의 재정이 일본 재정에 완전히 예속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이후 식민지 건설을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토착 민족자본은 일본 차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이른바 국채보상운동 등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전남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타 지역에 비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준비과정을 본다면 대구와 서울을 제외한 지방 가운데 가장 빠른 셈이었다.<sup>27)</sup> 따라서 전남지역에도 14개소에 보상회가 설치되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광지역의 상황을 보면, 조희경 정기인 정세철 등 26인이 발기인이 되어 ‘국채보상소’라는 이름으로 보상소를 설치하고 있었다.<sup>28)</sup> 이에 따라 의견금이 모금되는데 영광지역도 몇 차례에 걸쳐 의연자와 그 금액이 파악된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9)</sup>

배경엽 외 850여명 363원 48전

양명옥 외 220여명, 220원

이문표 외 36명, 18원 10전,

최자운 외 1,000여명 482원 88전

정군명 외 730여명 344원 44전

당시 전남지역 국채보상운동 참여인원이 약 1만2천명 이상이었고, 7,500여원이었다. 그 가운데 영광지역은 의연자수가 약 2,840여명을 넘고 의견금도 1,428원 90전으로 단연 돋보이는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영광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보상운동에 참여한 것을 보았을 때, 그만큼 강인한 항일 구국정신과 왕성한 애국애족정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 2) 저축조합운동

일제 강점기 특히 한국의 농촌에는 공공사업, 상호부조, 산업, 사교, 금융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계가 있었다. 그 가운데 시대변천에 따라 그 이름을 저축조합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sup>30)</sup> 저축조합 가운데 몇몇 알려진 사례를 보면, 우선 충남 서산의 경우 1919년경 군수 지희열이 군내의 모든 면민들로부터 매년 하모추조(夏牟秋租)를 몇 승(升)씩 거두어 조직한 사례가 있었다. 조합장은 당연 면장이나 지역 유지들이었다. 특히 서산 지역의 경우 각 면 단위로 저축조합이 설립되는데, 처음부터 각 면 단위로 보통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조성된 일종의 ‘기금’이었다고 평가된다.<sup>31)</sup>

27) 김기주, 「광주, 전남 지역의 애국운동 - 광주, 전남지방의 국채보상운동」, 『역사학연구』 10, 1996.

28) 김기주, 위의 논문.

29) 김기주, 앞의 논문.

30) 홍성찬, 「1920년대의 농촌 저축조합 연구-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저축조합’의 운영사례-」, 『동방학지』, 2006.

3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충남 서산)에 따르면 그 밖에 특별한 사례로 1921년 부석사 주지와 사하촌 유지들의 발의로 부석사 저축계가 조직되기도 했는데, 조직의 목적은 지주와 소작인의 화합이었고 회장, 재무, 서기, 찬성(贊成) 등이 두어졌다고 한다.

서산저축조합의 주요 사업과 활동 사항을 보면, 군청의 감독에 따라 자금의 출납, 대차, 예금과 지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꾸준한 출자와 이식 활동을 통해 조합 자산이 불어나자 이를 보통학교 설립 기금으로 기부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관리 부실로 대부 미회수금이 늘어나는 등 폐해가 속출하자 당시 군수 원은상(元殷常)은 해산과 청산을 명하였다.<sup>32)</sup>

또한 경기 북부지역의 '저축조합' 사례를 보면,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농촌 경제의 자립을 위해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저축 장려 활동을 전개한 것이 파악된다. 즉 1920년대 이후 경기도 포천의 각 지역에서 많은 청년 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 주요 사업의 하나로 가난한 농민을 계도하여 궁핍한 삶에서 구제하기 위한 조합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족 자본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면서 농촌 경제의 자립을 통해 자본 축적을 도모하려는 노력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1년 4월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신촌 청년회에서 동리 주민을 중심으로 근검저축 조합을 설립하였던 것이 알려진다.<sup>33)</sup>

이처럼 이 시기 식민지 조선사회의 '저축조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그쳐있어 상대적으로 그 설립, 운영, 해산 등에 대한 치밀한 사례 검토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한 면에서 홍성찬의 연구는 그 연구사적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즉 그는 1920년대 전반기 전남 보성 득량지역의 송곡저축조합에 대해 논구하고 있다.<sup>34)</sup> 그런데 이 역시 지역의 양반출신 대지주가 주도하고 있었으며 그 운영 또한 좌우하고 있었다.

더욱이 대부자금의 활용 등을 보면 사실상 고리대금업이었을 밝히고 있다.<sup>35)</sup> 이러한 까닭에 지역 저축조합들이 농민운동 세력의 공격을 받기 십상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지역의 유력자들이 저축조합을 설립한 데에는 고리대 수입에 버금가는 고수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동기가 일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존의 농촌질서가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기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사회적 동기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sup>36)</sup>

결국 일제강점기 저축조합은 농촌지역에 금융조합을 비롯한 단체 등이 설립되고 국책은행이나 일반은행이 보급됨에 따라 자연히 그 존립기반을 잃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면에서 여기에서 고찰 대상으로 하는 전남 영광지역의 저축조합과 그 활동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sup>37)</sup> 특히 1916년 전남 영광지역에서 탄생하여 1920년 대 이후 전북 이리(현재의 익산)를 중심으로 성장 발전한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의 경제적 정신적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sup>38)</sup>

3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충남 서산 저축조합편).

3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도 포천 근검저축조합 편).

34) 홍성찬, 앞의 논문.

35) 홍성찬, 앞의 논문.

36) 홍성찬, 앞의 논문.

37) 물론 이 시기 영광지역의 저축조합활동은 불법연구회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영광청년회의 경우에도 1920년 저축계를 조직하여 절검과 저축의 미풍을 조장한다는 활동이 포착되는데 회원수도 42명에 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참고로 된다. 『동아일보』, 1920년 6월 16일자 「영광의 저축계」.

그 시작은 1917년 8월 영광 백수면 길룡리에서 창설된 ‘길룡리저축조합’이다. 그 취지 또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절약정신을 심어주며 나아가 초기 ‘불법연구회’의 경제적 기초를 다지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허례폐지와 미신탄파, 금주단연과 금검저축 등을 통해 얻어지는 돈을 조합에 저금토록 하여 교단 창립의 토대를 삼고자 한 것이다.

이 저축조합은 이후 3.1운동이 전개되던 1919년 10월 사실상 ‘불법연구회기성조합’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후 불법연구회의 활동이 영광지역을 떠나 전북 부안 지역으로 잠시 옮겨가면서 그 이듬해인 1920년 3월 이동만에 의해 전남 영광의 묘량면 신흥지역에 ‘묘량신흥조합’이 설립된다. 뒤이어 김기천에 의해 영광지역 천정리에서 ‘천정조합’이 결성되기도 한다. 이후 이동만은 불법연구회에 귀의하고 결국 1924년 전북 익산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리며 ‘기성조합’은 발전적으로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전남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저축조합활동은 일종의 경제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9)</sup> 특히 1920년대에 거국적으로 전개된 민족경제 자활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을 비롯한 금주단연운동에 앞서는 선구적이고 창의적인 생활운동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sup>40)</sup>

## IV. 1910, 20년대 전남 영광지역의 종교지형과 공공성

### 1. 전남 영광지역의 종교지형

식민지시대 전남 영광지역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데 대체로 그리스도교(개신교·천주교), 불교, 불법연구회(원불교) 등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영광지역과 가장 먼저 만남이 거론되는 종교는 불교이다. 즉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오늘날 중국의 상해 소주, 항주, 남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진(東晉)으로부터 백제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이른바 법성포 도래지설로 정착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구전은 추가적인 학술연구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sup>41)</sup>

이를 요약하면 불갑사(佛甲寺)의 갑자(甲字)가 첫째라는 의미인 것을 보아 최초로 마련된 절이라는 주장,<sup>42)</sup> 보주형의 장치물이 인도 혹은 백제불교미술의 원형으로 작

38) 이와 함께 1918년 전남 영광지역에서 ‘불법연구회’에 의해 이루어진 방언공사 또한 주목된다. 즉 저축조합을 통해 형성된 자금이 그 공사에 활용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순철, “신흥저축조합 연구”, 원불교학회, 『원불교학』제5집(2000) 참조.

39) 일반적으로 3.1운동 이후 전개된 대중적 경제운동으로는 조선물산장려운동을 들고 있다. 또한 물산장려운동이 소수 한국인 자본가의 혜택으로 귀속되면서 대중이 운동에서 탈락하자, 1920년대 후반에는 대중적 자주경제 수립을 지향하는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서는 오미일, 앞의 책 참조.

40) 신순철, 앞의 논문.

41) 이에 대해서는 영광군/동국대학교 부설 사찰조경연구소, 『백제불교 전파경로 고증을 위한 연구』(1998) 속에 포함된 김복순, 「백제불교 초전 도래지 고증을 위한 연구」; 이해은, 「백제불교 전파경로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홍광표, 「문화경관론적 측면에서 고찰한 영광불교 도래지설」 참조.



용하였을 것으로 보아 남중국의 불교양식과 관련성이 보인다는 불갑사 대웅전의 탑신 주장,<sup>43)</sup> 법성면 진내리(925번지) 벼랑 밑에 마라난타가 모시고 왔다고 전해지는 미륵 불의 두상(頭上)부분이 있다는 불두(佛頭) 주장 등이 있다.

그밖에도 중국의 산둥(山東)반도와 백제의 법성포와는 위도상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황해를 건너기에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고, 이 때문에 이전부터 법성포에는 중국과 직거래하는 수로가 열려있었다는 주장 등이 백제불교 초전 법륜지로서 영광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후 18세기말에 이르러 영광지역은 천주교와의 만남이 시작된다<sup>44)</sup>. 즉 1795년경 인척의 권유로 천주교 교리를 배운 영광지역 이우집이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사형 당한다. 같은 박해로 영광에서는 여러 명이 참수 또는 유배된다. 이 신유박해 이후에도 영광에서 천주교회는 계속되어, 1866년 병인박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교수당한 김치명 역시 영광 출신이고, 1871년 나주 무학당에서 순교한 유문보 역시 영광에 거주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890년대 영광지역은 동학운동의 중요한 근거지가 된다. 즉 동학농민군은 1894년 음력 4월 4일 법성진에 통문을 보내고 8일 후인 4월 12일에 영광읍성에 입성한다. 이틀 뒤인 14일에 법성포로 진격 해와 군량미를 확보한다. 그 때 마침 세곡을 싣기 위해 입항해 있던 한양호와 바다에 머물러 있던 인천호를 공격한 뒤 함평으로 진격한다. 당시 동학농민군의 남진과 영광에 무혈 입성한 농민군의 활동 및 법성포를 점령함에 따라 세곡수송이 두절된 그 역사적 현장은 현재에도 남아있다.<sup>45)</sup>

한편 천주교보다 1세기 후인 19세기 말에는 개신교의 영광지역 선교가 시작된다.<sup>46)</sup> 즉 1893년 1월 28일 조직된 재한 장로교선교사들의 '장로회 장치를 쓰는 미션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의 선교지역 분할 결정에 따라 전라도 지역은 남장로교 선교회 담당지역이 되었다. 남장로교 선교회의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이눌서) 목사와 드루(A. Drew, 유대모) 선교사는 전라도 선교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자 1894년 3월 인천을 출발하였다. 한 달에 걸친 전라도 여행 중 이들은 영광에도 방문함으로써 영광지역 개신교 선교의 첫 문을 연 것이다.

뒤이어 1903년 백수읍교회, 1904년 묘량면의 신천리교회가 설립되고, 1904년 12월 광주에 정착한 벨(Eugeul Bell, 배유지) 선교사와 김문삼(金文三)·박인원(朴仁源) 조사(助師)의 노력으로 1905년 영광읍 무령리교회가 설립된다. 이어 1908년 4월 야월교회, 1935년 법성중앙교회, 1939년 염산제일교회 등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상에서 소개된 백수읍교회·신천리교회·무령리교회는 모두 지역민들이 외부인에게 기독교 복음

42) 영광군 불갑면에 위치한 불갑사는 충남 공주의 갑사, 전남 영암의 도갑사와 함께 한국 불교의 삼갑사 가운데 하나로 불리운다. 절의 이름인 '불갑'이란 절 가운데 으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43) 이해은, 「불교전래를 통해 본 문화확산-전남 영광지역을 예로-」, 한국사진지리학회, 『사진지리』7, 1998, 54쪽.

44) 윤선자, 「영광군의 종교지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31호 2009.

45) 신정일, 『갑오동학농민혁명 답사기 신정일의 우리땅 걷기』, 2014, 푸른영토, 384쪽.

46) 윤선자, 앞의 논문.

을 듣거나 선교사 등의 전도에 의해 교회가 설립된 경우이다. 반면 야월교회는 일진회에 반대하기 위해 봉산교회에 다니던 인물들에 의해 설립되었다.<sup>47)</sup>

그러한 면에서 전남 영광지역에서 종교사적으로 가장 늦게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원불교인 셈이다. 원불교는 1916년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영광에서 개창되었고, 창시자 박중빈(朴重彬)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그는 1891년 영광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구도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1917년 저축조합운동을 펼치며, 1918년에는 간척사업을 전개한다. 이후 부안에서 교법제정과 제자 확보에 주력한 후 1924년 전북 익산에서 ‘불법연구회’라는 명칭으로 교문(敎門)을 열며 그 무게 중심을 옮기기에 이른다.<sup>48)</sup>

## 2. 영광지역 종교의 공공성

이상에서 보았듯이 전남 영광지역은 일찍부터 불교의 도래지역으로 일컬어져왔음은 물론, 동학, 개신교, 천주교, 불법연구회(원불교) 등이 교차하며 공존했던 독특한 종교 문화 및 사상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1910년대 전후 시기 영광역의 종교지형과 민족사회·경제운동 가운데 투영된 종교적 공공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전남 영광지역 종교의 존재양상을 사회경제운동사의 측면에서 볼 때,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독교계의 일정한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sup>49)</sup>

“(1910년대 전후 시기) 영광의 종교 사정을 보면, 다른 종교는 특별한 세력이 없었고, 기독교의 경우는 일정한 세력이 있었다. 영광의 최초의 교회인 영광읍교회는 1905년 유진 벨 선교사가 최봉륜의 집에 무령교회를 세움으로써 시작되었다. 초창기 교회업무는 선교사의 조사인 변창연·이경필 등이 맡았으며, 무령리의 한 가옥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1915년에는 담양 출신인 위계후가 영광보통학교 훈도로 오면서 교회 조사 일을 맡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위계후와 영광읍교회는 직접 이에 관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계후는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축출되었다.”

또한 일찍부터 영광청년회 활동에 참여한 편진옥(片晉鈺)은 영광읍교회의 장로였으며, 1920년대 사립영광학교 교사였던 김형모(金衡模) 역시 같은 교회의 집사이자 유년주일학교 교사로서 영광청년회의 집무위원을 맡고 있었다.<sup>50)</sup> 반면 불교계와 천주교

47) 윤선자, 앞의 논문.

48) 영광군에는 1918년 영광교당 설립을 시작으로 14개의 원불교 교당이 설립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로 된다. 박맹수, 「한국 근현대사에서 본 원불교 신흥교당의 문화적 위상」,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제217차 월례발표회, 2017.

49) 박찬승, 앞의 논문.

에서는 민족사회·경제운동과 관련하여 뚜렷한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같은 시기 전남 영광지역에서 창설된 불법연구회가 지니는 지역의 종교사적 지형과 근대 한국 신종교사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일가.<sup>51)</sup> 이에 대해서는 조경달의 논구가 매우 설득적이다.<sup>52)</sup> 그는 불법연구회가 ‘통속도덕을 강조하며 근검 사상의 내면화를 추구하면서 먼저 저축조합을 결성하고, 이후 기성조합을 조성하며 교단형성을 선언’한 것에 주목을 한다. 나아가 ‘물질문명으로 조선 지배를 가혹하게 행하고, 눈앞에서 조선의 민중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던 일본에 대한 비판이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53)</sup>

특히 그는 이 시기 불법연구회와 관련하여 ‘갑오농민전쟁 이래 투쟁에 지치고 지친 민중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실효 있는 생활안정을 가져오고자 결의’하고, ‘민족적 분노를 인내로써 극복하고 그 정력은 근검과 성심의 내성주의적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박중빈의 종교적 확신’에 초점을 두며 그 종교사적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sup>54)</sup>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시기 이후 해방공간 및 한국전쟁기 전후까지도 늘 민족사회운동은 물론 이념 투쟁의 도가니와 같았던 영광지역의 토양 가운데 불법연구회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sup>55)</sup>

요컨대 이러한 정황 가운데 불법연구회는 1916년 이후 저축조합운동과 영광 해안 지대의 간척을 통한 농지화 및 공동경작 등의 과정을 거치며 그 역사문화 및 경제사회적 기반을 다졌던 것이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 전북 부안을 경유하여 그 본거지를 전북 익산으로 옮기며 정식으로 불법연구회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1916년의 창립으로부터 8년 뒤인 1924년의 일이었다.

아무튼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근대 시기 영광지역은 보기 드물게 불교, 천주교, 동학, 기독교, 불법연구회 등 여러 종교가 공존했던 종교지형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sup>56)</sup> 더욱이 영광지역은 동학에서 의병, 3.1운동과 청년, 노동, 농민 등 민족사회운동과 국채보상 및 저축조합 등 경제운동도 특별히 치열했던 격동의 현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구한말부터 기반을 다진 기독교계의 경우 청년운동 등에서 몇몇 활동

50) 박찬승, 앞의 논문. 하지만 이 시기 영광지역의 기독교 계열 종교사회운동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1) 조경달 박맹수, 「식민지 조선에 있어 불법연구회의 교리와 활동」,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67, 2016, 283-284쪽.

52) 조경달 박맹수, 앞의 논문.

53) 조경달 박맹수, 앞의 논문.

54) 조경달 박맹수, 앞의 논문.

55) 예컨대 불법연구회 창립자가 1919년 봄 영광경찰서에 연행되어 약 1주일간 조사를 받았고 특히 저축조합과 교단 조직활동에 대한 상당한 압력과 감시를 피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북 부안 내변산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순철, 앞의 논문 참조.

56)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가 참고가 된다. 『동아일보』, 2018년 3월 6일자. “전남 영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 종교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다. 법성면 진내리 좌우두 일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는 인도승 마라난타가 384년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하면서 최초로 발을 디딘 곳이다. 백수읍 길용리 원불교 영산성지는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태어나 원불교를 세운 곳이다. 염산면 설도항에는 6·25전쟁 당시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저항한 신자 194명의 순교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영광읍 영광성당 옆에는 조선시대 신유박해 당시 순교한 신자들을 추모하는 천주교 순교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가가 눈에 띈다. 불법연구회 역시 독특한 구도정신 가운데 1916년 창립되어 특유의 경제사회운동을 통해 그 기초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1920년대 중반 무렵에는 영광청년회와 영광노농연합회의 주최로 보천교성토대회를 개최한 기사도 눈에 띈다.<sup>57)</sup> 그러나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영광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사회운동 및 경제운동 가운데 여러 종교 사이의 대화와 연대와 제휴의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그 독특한 종교지형 가운데 전개된 종교사회운동 등의 사례발굴을 비롯하여 근대시기 개별 종교 영역의 사회경제적 공공성 담보를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up>58)</sup>

## V. 맺음말

1910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 한국사회의 격변 가운데 한국의 근대종교도 근대문명에 대한 나름의 응전을 전개시켜 나간다. 즉 근대 한국종교 또한 ‘이념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대응, 새로운 사회와 국가질서의 추구 등을 통해 근대와 대면하는 지난한 몸부림을 전개시켜 나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상적 삶과 관련된 제반 민족사회운동, 경제운동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획득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10, 20년대 공간적으로는 전남 영광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동학과 의병 및 3.1운동과 청년, 노동, 농민운동 등을 비롯한 민족사회운동과 국채보상운동, 저축조합운동 등 경제운동의 전개에 주목하였다. 특히 공간적으로 전남 영광지역을 주목하는 것은 일찍부터 불교의 도래지역으로 일컬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학, 개신교, 천주교, 불법연구회(원불교) 등이 교차하며 공존했던 독특한 종교문화 및 사상적 지형 때문이기도 했다.

전남 영광지역은 1910년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 군청, 면사무소, 경찰서, 지방법원 출장소, 수리조합, 우편소, 군농회, 금융조합, 삼림조합, 어업조합, 축산동업조합, 학교조합 등 근대적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다. 그 가운데 신학문 교육이 시작되어 지식층이 형성되고 있었고, 그 영향은 이후 영광지역의 민족사회운동과 경제운동 등의 전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재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영광지역은 일찍이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웃한 전북 무장현(茂長縣)과 함께 동학군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또한 의병운동을 비롯하여 3.1운동, 기타 사회경제운동도 활발한 곳이었다. 더욱이 식민지 시기 영광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

57) 『동아일보』, 1925년 1월 23일자 「신천 흠치는 멸망」.

58) 이에 대해서는 근래 영광군이 4대종교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그 기초적인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불법연구회의 종교문화유사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조로 된다. 박맹수, 「원불교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 전남 영광의 원불교 영산성지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1권, 2005.

적으로 많은 일본인이 진출하여 수리조합 등의 개설 가운데 농민들의 항일운동을 비롯하여 청년, 노동운동과 저축조합운동 등 경제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곳이었다.

또한 보기 드물게 불교, 천주교, 동학, 기독교, 불법연구회라는 대표적인 종교들이 공존했던 지형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리고 동학과 기독교 계열 및 불법연구회의 경우에는 청년운동과 일상 및 경제운동 등에서 그 공공성을 지향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보인다. 하지만 종교 사이의 대화와 연대적인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이 시기 지역의 종교사회운동에 관한 사례발굴을 비롯하여 근대시기 개별 종교 영역의 사회경제적 공공성 담보를 위한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토양 가운데 이곳에서 탄생한 근대 한국 신종교인 불법연구회는 1910년대는 물론 이후 해방공간 및 한국전쟁기 전후까지도 늘 민족사회운동의 도가니와 같았던 전남 영광이라는 현장에서 그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영광지역의 민족사회운동 및 경제운동의 전개 가운데 여러 종교의 존재양상 및 공공성의 공통 기반을 복원하고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일제 강점기가 배태한 사회경제적 조건 가운데 시대적 가치, 즉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정의를 아우르는 공동선을 바탕으로 하는 시대적, 공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촉구하는 종교들의 개별적인 노력과 공동의 실천 등에 대한 관심과 조사 연구 성과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광식·김동환·윤선자·윤정란·조규태, 『종교계의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김진호·박이준·박철규, 『국내 3.1운동 II - 남부』, 경인문화사, 2009.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법성향지편찬위원회, 『법성향지』, 영광군, 1988.  
신정일, 『갑오동학농민혁명 답사기 신정일의 우리땅 걷기』, 푸른영토, 2014.  
영광군지편찬위원회, 『영광군지』, 영광군, 2013.  
오미일, 『경제운동』, 경인문화사, 2008.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한국 신종교 지형과 문화』, 집문당, 2015.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근대 한국 개벽종교를 공공하다』, 모시는사람들, 2018.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 동학농민 혁명사』, 전라남도, 1996.  
이재언, 『한국의 섬』 4, 지리와 역사, 2015.  
정승진, 『한국근세지역경제사-전라도 영광군 일대의 사례』, 경인문화사, 2003.  
팀 마샬 지음, 김미선 옮김, 『지리의 힘』, 사이, 2016.  
染川覺太郎, 『全南事情誌』, 京城:全羅南道事情誌刊行委員會, 1930.

## 2. 논문류

- 김기주, 「광주, 전남 지역의 애국운동 - 광주, 전남지방의 국채보상운동」, 『역사학 연구』 10, 1996.
- 김민영, 「1920, 30年代 全南 靈光地域 民族運動의 社會經濟的 基盤」, 국제문화학회, 『역사와 사회』 16권 16호, 1996.
- 김복순, 「백제불교 초전 도래지 고증을 위한 연구」 영광군/동국대학교 부설 사찰조경 연구소, 『백제불교 전파경로 고증을 위한 연구』, 1998.
- 김준, 「칠산어장과 조기파시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도서관학』 34, 2009.
- 박맹수, 「원불교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 전남 영광의 원불교 영산성지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1권, 2005.
- 박맹수, 「한국 근현대사에서 본 원불교 신흥교당의 문화적 위상」,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제217차 월례발표회, 2017.
- 박찬승, 「일제하 영광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0권, 2002.
- 변남주, 「영광 법성포 조창과 수군진의 변화」, 『도서관학』 44, 2014.
- 신순철, 「신흥저축조합 연구」, 원불교학회, 『원불교학』 제5집, 2000.
- 윤선자, 「영광군의 종교지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31호 2009.
- 이기태, 「일제시기 영광지역의 사회운동-신문기사를 통한 향토사 연구사례-」, 영광향토문화연구회, 『향맥』 제10호, 1997.
- 이혜은, 「백제불교 전파경로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영광군/동국대학교 부설 사찰조경연구소, 『백제불교 전파경로 고증을 위한 연구』, 1998.
- 이혜은, 「불교전래를 통해 본 문화확산-전남 영광지역을 예로-」, 한국사진지리학회, 『사진지리』 7, 1998.
- 조경달 박맹수, 「식민지 조선에 있어 불법연구회의 교리와 활동」,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7, 2016.
- 홍광표, 「문화경관론적 측면에서 고찰한 영광불교 도래지설」, 영광군/동국대학교 부설 사찰조경연구소, 『백제불교 전파경로 고증을 위한 연구』, 1998.
- 홍성찬, 「1920년대의 농촌 저축조합 연구-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저축조합'의 운영 사례-」, 동방학지, 2006.

## 3. 자료

- 『경향신문』, 2017년 9월 22일자 「붉게 물든 꽃무릇 천지, 곳곳에 서린 동학과 의병 이야기」.
- 『동아일보』, 1925년 1월 23일자 「신천 흠치는 멸망」.
- 『동아일보』, 1920년 6월 16일자 「영광의 저축계」.
- 『동아일보』, 1922년 7월 31일자 「영광청년회 활동 호남지방의 이상향」.